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현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현

인 준 서

김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김 지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미 숙

입시과목만 중요시하는 중학생들에게 음악 교과는 주변 교과로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음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젊고 늙음의 나이를 떠나 음악은 인간의 전 생애동안 함께 해야 하며 더욱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는 이러한 좋은 음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음악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가꾸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업을 통해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이 음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중학생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능력 및 수준을

깨닫고 자신이 음악의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음악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들이 음악을 배움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3
-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1. 중학생과 음악 활동 ----- 4
- 2. 음악의 중요성 ----- 7
-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 10
- 4. 음악적 선호도와 방향 제시 ----- 12

III. 연구의 방법

- 1. 연구 기간 및 대상 ----- 16
- 2. 조사 도구 ----- 1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이해 ----- 19
- 2. 활동 ----- 30
- 3. 능력 ----- 37
- 4. 관심도 ----- 54
- 5. 자아인식 ----- 77
- 6. 요약 ----- 91

V. 결론 ----- 9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표 목 차

<표 1>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	7
<표 2> 대상 학생 현황	16
<표 3> 영역별 내용	18
<표 4> 리듬에 대한 분석	20
<표 5> 가락에 대한 분석	21
<표 6> 화성에 대한 분석	23
<표 7> 형식에 대한 분석	24
<표 8> 셈여림에 대한 분석	26
<표 9> 빠르기에 대한 분석	27
<표10> 음색에 대한 분석	29
<표11> 가창에 대한 분석	31
<표12> 기악에 대한 분석	32
<표13> 창작에 대한 분석	34
<표14> 감상에 대한 분석	35
<표15> 시창에 대한 분석	37
<표16> 청음에 대한 분석	39
<표17> 음악 이론에 대한 분석	40
<표18> 민요에 대한 분석	42
<표19> 지휘에 대한 분석	43
<표20> 합창에 대한 분석	45
<표21> 단소에 대한 분석	46
<표22> 장구에 대한 분석	48

<표23> 리코더에 대한 분석	49
<표24>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51
<표25> 피아노에 대한 분석	52
<표26>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54
<표27>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56
<표28>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58
<표29>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60
<표30>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61
<표31>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63
<표32>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64
<표33>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66
<표34>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67
<표35>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69
<표36> 기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70
<표37>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72
<표38>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74
<표39>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76
<표40> 음악적 자아인식 문항별 점수	78
<표41>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78
<표4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79
<표4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80
<표4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81
<표45>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82
<표46>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83
<표4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84

<표48>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	85
<표49>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의 도움 되는 정도 -----	86
<표5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	87
<표5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	88
<표52> 음악 레슨의 필요성 -----	89
<표53> 학년별 음악적 자아 인식 -----	90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현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현

인 준 서

김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 연구

김 지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미 숙

입시과목만 중요시하는 중학생들에게 음악 교과는 주변 교과로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음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젊고 늙음의 나이를 떠나 음악은 인간의 전 생애동안 함께 해야 하며 더욱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는 이러한 좋은 음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음악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가꾸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업을 통해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이 음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중학생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능력 및 수준을

깨닫고 자신이 음악의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음악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들이 음악을 배움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 교육내용 및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3
-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1. 중학생과 음악 활동 ----- 4
- 2. 음악의 중요성 ----- 7
-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 10
- 4. 음악적 선호도와 방향 제시 ----- 12

III. 연구의 방법

- 1. 연구 기간 및 대상 ----- 16
- 2. 조사 도구 ----- 1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이해 ----- 19
- 2. 활동 ----- 30
- 3. 능력 ----- 37
- 4. 관심도 ----- 54
- 5. 자아인식 ----- 77
- 6. 요약 ----- 91

V. 결론 ----- 94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표 목 차

<표 1>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	7
<표 2> 대상 학생 현황	16
<표 3> 영역별 내용	18
<표 4> 리듬에 대한 분석	20
<표 5> 가락에 대한 분석	21
<표 6> 화성에 대한 분석	23
<표 7> 형식에 대한 분석	24
<표 8> 셈여림에 대한 분석	26
<표 9> 빠르기에 대한 분석	27
<표10> 음색에 대한 분석	29
<표11> 가창에 대한 분석	31
<표12> 기악에 대한 분석	32
<표13> 창작에 대한 분석	34
<표14> 감상에 대한 분석	35
<표15> 시창에 대한 분석	37
<표16> 청음에 대한 분석	39
<표17> 음악 이론에 대한 분석	40
<표18> 민요에 대한 분석	42
<표19> 지휘에 대한 분석	43
<표20> 합창에 대한 분석	45
<표21> 단소에 대한 분석	46
<표22> 장구에 대한 분석	48

<표23> 리코더에 대한 분석	49
<표24>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51
<표25> 피아노에 대한 분석	52
<표26>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54
<표27>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56
<표28>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58
<표29>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60
<표30>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61
<표31>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63
<표32>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64
<표33>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66
<표34>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67
<표35>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69
<표36> 기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70
<표37>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72
<표38>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74
<표39>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76
<표40> 음악적 자아인식 문항별 점수	78
<표41>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78
<표4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79
<표4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80
<표4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81
<표45>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82
<표46>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83
<표4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84

<표48>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	85
<표49>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의 도움되는 정도 -----	86
<표5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	87
<표5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	88
<표52> 음악 레슨의 필요성 -----	89
<표53> 학년별 음악적 자아 인식 -----	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중 음악과의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¹⁾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음악교육자들은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자라나는 시절에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 p 2, 28

특히 사춘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중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학생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성격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음악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음악 활동이 개개인이 지니는 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의 삶의 특성, 음악의 본질과 가치, 사회적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들은 현대 사회의 일반 학교에서 음악이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여야 한다는 믿음을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과 교육내용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설문 조사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다.
- 2)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한다.
- 3) 학생들의 음악적 관심도를 조사한다.
- 4) 학생들의 음악적 자아개념 인지도를 조사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과 교육내용 및 선호도 조사에 있어 서울시의 s 중학교로 제한하여 중학생을 대표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본집단의 학년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1. 중학생과 음악 활동

가장 대표적인 음악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한 Piaget의 인지 발달이론은 신체적 성숙과 지적인 성숙이 전제되어야 학습이 가능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동화, 조절, 평형 상태를 통해 인지적 구조가 성장 발달하고 이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을 수용하고 학습자의 지적인 도식을 수정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Piaget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Piaget는 형식적 조작기(11-15세)를 인지 발달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 형식적 조작단계의 아동은 논리적 조작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사고의 질적 잠재력은 형식적 조작이 성취될 때 최고조에 달한다.

기능적으로 볼 때 형식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는 그들이 다같이 논리적 조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둘의 차이는 형식적 사고가 되는 아동은 논리적 조작을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데 비해 구체적 사고는 현재의 구체적 문제를 푸는데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조작이 되는 아동은 모든 종류의 문제(현재, 미래, 과거, 가설적 언어 등)를 다룰 수 있으나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문제를 하나 하나 떼어서 다룰 수밖에 없다.

Piaget의 이론을 통해 학습은 학습자의 지적인 준비상태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학습자에게 가능한 학습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이론으로 꼽힌다.

Piaget의 말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학생들의 인지 구조는 대체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논리에 의해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Piaget는 중학생들이 이 기간에 가설적 언어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과학적 추리와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는 그 본질상 가설 연역적 사고이며, 명제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 시기의 중학생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 또는 구체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닌 미래를 가상할 수도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인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음악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시기는 감성적, 지적으로 음악적인 성취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술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로 형식적 조작기의 중학생들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중학교 음악과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악곡의 의미와 통찰을 바탕

2) 장 피아제 “교육론”, 동문선

으로 감상과 연주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적극 그들의 연주활동을 유도하고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중학생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중요한 존재이므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성 세대들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더욱이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식과 인간성 상실로 인해, 중학생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인간미의 상실을 겪는 이 때 이들에게 인간미와 정서의 함양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로는 음악, 영화, 연극, 독서 및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레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모두가 중학생의 정신 건강과 정서 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 중 중학생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다.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허용해주면서 그들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해 주어야 하겠다. 다음 표는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3) 김혜경 “TV방송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 19호, 민족 음악 학회, 2000, p 244-245

<표 1>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

발달 달령	발달 심리적 특징	음악적 성장
형식적 11 15 조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성숙으로 논리적 조작을 폭넓게 적용 · 가설적인 언어 문제를 다룸 · 가설설정과 검토 · 성인과 같은 사고의 형태를 갖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적, 지적으로 음악적인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 예술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 · 악곡의 의미와 통찰을 바탕으로 감상과 연주활동을 유도하여 음악 문화를 향유하도록 지도

2. 음악 교육의 중요성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학교 음악 교육은 주로 음악 외적 가치를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이 시대에 있어 음악 교육은 사회를 위해 실제적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면, Platon은 음악 교육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유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하였다. 18세기에는 음악이 민족주의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

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1830년대의 미국의 Lowell Mason은 음악이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교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Boston의 공립 학교들로 하여금 음악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4)

인간 역사를 통하여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문화의 영속성과 미적인 삶의 고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삶을 위한 기술의 습득, 개개인의 주체성 구축, 창조성의 계발이 공교육의 근본으로, 음악을 통하여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음악교육이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Tanglewood 선언처럼 음악은 현대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육과목이자 생활 수단인 것이다.

교과로서의 위치 역시 확고하다. 과거 주지주의 입장에서 IQ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문 중심적인 교과가 교과로서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교과 성격규정으로 학문적인 면 이외에 실용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실과, 기술 같은 과목을 모두 교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인간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감성지수(EQ)의 중대성이 증가됨에 따라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위상은 이미 확고하고, 외국의 경우 초등 교육에서도 점차 핵심교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4) 이홍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96-97

경우 불행하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운용으로 말미암아 음악 교과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주변 교과로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보고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교과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과정에 음악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볼 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역할이 학생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하는 것이 라면 음악은 학교 교육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다. 또한 음악은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로서 인간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 왔다. 어느 시대, 문화, 인종을 망라하고 음악이 있어 왔는데,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추구되어 왔고, 인간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에 학교 음악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개인의 감정표현을 위한 매개체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내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 및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소개하여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

의 잠재성에 대하여 알고 학생들이 음악을 탐구하여 표현적 매개체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⁵⁾

학교의 음악교육은 국민의 공통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적 성격을 띤 음악교육으로서, 국민의 전체성을 고려한 예술교육의 한 일환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음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음악교육의 결핍이 인간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음악교과의 제자리 찾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⁶⁾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교급별, 학년급별에 따라 학습되어야 할 음악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음악 개념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모든 음악 개념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음악적 이해는 개개의 음악 요소의 구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음악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므로 이들 개념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은 많은 개념들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

5)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풍남, 1996, p 2-3

6)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교육 인적 자원부 p. 105, 108, 113, 114

서, 각 학년별로 제시되는 개념은 한 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했던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되거나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감각적 경험을 주로 하던 학습 형태로부터 지적, 논리적 사고도 중히 여기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

음악 개념은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여 주는 음악 행위를 통하여 학생의 음악적 이해를 관찰하여 파악하게 되므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의 ‘활동’ 영역은 제6차 교육 과정의 표현과 감상 영역을 음악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감상 활동은 학생이 음악을 집중하여 들으며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악곡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노래나 연주를 들으면서, 자신이 만든 곡을 들으면서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음악을 듣는 행위는 음악 수업에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상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의 주요 네 가지 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활동의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구분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지,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에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창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가창 중심의 수업에서, 기악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기악 중심의 수업에서, 창작 영역과 감상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각각 창작 중심의 수업, 감상 중심의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음악수업에서는 1시간에 하나의 활동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 교사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두 가지 활동,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 수업은 위에서 제시한 음악 개념의 이해와 활동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음악적 선호도와 방향 제시

선호도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취향과 혼용되지만, 취향이 전체적이고 긴 안목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선호도는 특정한 대상에 관한 것이며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악 선호도는 어떤 특정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이며 반복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전하고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⁷⁾

중학생들이 주로 듣는 음악은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된 것이거나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것이어서 그들의 음악적 필요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학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지를 인식하기도 전에 일시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된 오락적인 음악만을 듣게 될 경우 그들

7) 강은경 “청소년의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2003, p 4

은 평생을 통해 그러한 음악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사는 인식해야 한다.⁸⁾

중학생들이 듣고 부르는 음악과 노래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나타나는 가사의 내용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규범을 비교적 명백히 드러내어주며 그들이 듣는 음악의 구조와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사상은 그들의 의식을 심층에서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음악 교과는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로 확장해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비록 전문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 음악 교육일 것이다.¹⁰⁾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역시 ‘전문음악가의 배출’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춘 인격형성’이 적합한 교육목적일 것이다. 이는 곧 ‘음악의 바람직한 체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참다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¹¹⁾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중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8)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3, p 284

9) 서우석 “서우석 음악 논집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1986, p 173

10) 김선혜 “현장 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음악학회, 2000, p 56-57

11) 정정연, 이윤경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집, 민족음악연구회, 1990, p 137

체험을 통하여 익히게 되므로 음악교육은 ‘미적 체험의 교육’이라는 인식 위에서 교육적 실천의 기틀을 잡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의식을 배양해 그들의 음악미의 감상능력과 창작능력이 풍부해지게 함과 동시에 자연, 인생 그 밖의 모든 방면에 대해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음악가나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창조적인 자기표현의 함양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으로 인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¹²⁾

인간이 지닌 창조의 본능적인 욕구를 음악 학습 활동을 통하여 충족, 향상, 발전시킨다는 것이 개인의 잠재적인 음악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민족 음악의 창조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³⁾

음악 교과 교사는 물론 음악 교과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육 현장에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길러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음악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음악 인지도를 바르게 알고 그들의 수준과 선호도에 맞게 음악 교육을 실시한다면 중학생들에게 있어 음악 과목의 위상은 높아지고 수업의

12) 이성삼 “음악 교수법” 세광 음악 출판사, 1982, p 16

13) 주수정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6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즉 이해와 활동 영역을 토대로 중학생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음악 능력, 관심도, 음악적 자아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교 음악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 이 다섯 개의 영역은 음악에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해와 활동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소개되고 있다. 음악의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 능력과 그들의 관심도, 음악적 자아 인식 등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교육 내용의 실태를 알 수 있으므로 다섯 개의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기간 및 대상

이 연구는 2005년 3월, 4월에 서울 소재 s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로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통계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남·여 공학인 s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중학교에 총 3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 돌아오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 308부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97.78%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2> 대상 학생 현황

학년	표본수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1년	102명	62명	40명
중학교 2년	104명	57명	47명
중학교 3년	102명	56명	46명

2.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중학생들의 음악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48개 항목의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음악적 능력 및 관심도와 생각에 대한 내용 등의 기초적인 물음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10명을 실시하여 문제되는 문항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3> 영역별 내용

영역	조사내용	문항
이해 영역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7문항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문항
음악적 능력	시창, 청음, 이론, 민요, 지휘, 합창, 단소, 장구, 리코더, 바이올린, 피아노	11문항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음악교과, 음악동아리, 연주회, 대중가요, 클래식, 판소리·민요, 국악 기악곡, 팝송, 종교음악,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14문항
음악적 자아 인식	음악과 청소년교육·정서적 안정감·상상력 풍부·감정 표현과의 관련성, 끝까지 노력의 여부, 성적과 관련 없이 음악의 중요성, 성적의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 가능, 음악의 실생활의 도움 여부, 가족과의 악기연주, 음악 감상의 생활화, 레슨의 필요성	12문항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설문에서는 성별과 학년 그리고 레슨 경험의 유무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레슨 경험이란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사교육이나 특기 적성을 통해 음악을 배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성악 레슨이나 기악 레슨 등 모든 레슨 경험을 포함한다.

가) 리듬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리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리듬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2	18.3	2	1.5	9	8.8	10	9.6	15	14.7	8	3.7	26	28.3
나. 약간 모른다	32	18.3	20	15.0	10	9.8	25	24.0	17	16.7	31	14.4	21	22.8
다. 보통이다	54	30.9	53	39.8	35	34.3	31	29.8	41	40.2	76	35.2	31	33.7
라. 약간 안다	40	22.9	34	25.6	32	31.4	23	22.1	19	18.6	65	30.1	9	9.8
마. 매우 잘 안다	17	9.7	24	18.0	16	15.7	15	14.4	10	9.8	36	16.7	5	5.4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36.6%, 여: 16.5%)하고 있으며, ‘보통이다’와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리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리듬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듬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6.8%, 무: 15.2%)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리듬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

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리듬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은 리듬의 인지도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가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3	19.1	8	6.0	9	8.8	17	16.7	15	14.7	11	5.1	30	32.6
나. 약간 모른다	38	22.0	21	15.8	17	16.7	23	22.5	19	18.6	39	18.2	20	21.7
다. 보통이다	63	36.4	48	36.1	35	34.3	35	34.3	41	40.2	77	36.0	34	37.0
라. 약간 안다	27	15.6	38	28.6	31	30.4	17	16.7	17	16.7	63	29.4	2	2.2
마. 매우 잘 안다	12	6.9	18	13.5	10	9.8	10	9.8	10	9.8	24	11.2	6	6.5
합계	173	100.0	133	100.0	102	100.0	102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락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41.1%, 여: 21.8%)하고 있으며,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가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락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락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0.6%, 무: 8.7%)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락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락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은 가락의 인지도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화성’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화성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68	39.3	33	25.0	39	38.2	38	37.6	24	23.5	54	25.2	47	51.6
나. 약간 모른다	43	24.9	33	25.0	22	21.6	28	27.7	26	25.5	56	26.2	20	22.0
다. 보통이다	36	20.8	42	31.8	24	23.5	19	18.8	35	34.3	62	29.0	16	17.6
라. 약간 안다	18	10.4	19	14.4	13	12.7	10	9.9	14	13.7	31	14.5	6	6.6
마. 매우 잘 안다	8	4.6	5	3.8	4	3.9	6	5.9	3	2.9	11	5.1	2	2.2
합계	173	100.0	132	100.0	102	100.0	101	100.0	102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화성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5.0%, 여: 18.2%)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화성 인지도는 각 빈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화성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화성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9.6%, 무: 8.8%)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낮은 수치로 응답(유: 51.4%, 무: 73.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화성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형식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형식'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형식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43	24.6	17	12.9	12	11.8	29	28.2	19	18.6	22	10.2	38	41.8
나. 약간 모른다	43	24.6	37	28.0	30	29.4	27	26.2	23	22.5	60	27.8	20	22.0
다. 보통이다	53	30.3	44	33.3	31	30.4	27	26.2	39	38.2	74	34.3	23	25.3
라. 약간 안다	27	15.4	25	18.9	21	20.6	15	14.6	16	15.7	45	20.8	7	7.7
마. 매우 잘 안다	3	5.1	9	6.8	8	7.8	5	4.9	5	4.9	15	6.9	3	3.3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3	100.0	102	100.0	216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형식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0.5%, 여: 25.7%)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남: 30.3%, 여:33.3%)한 학생의 경우도 비슷하여 성별에 따른 형식 인지도는 각 빈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형식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형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7.7%, 무: 11.0%)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낮은 수치로 응답(유: 38.0%, 무: 63.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형식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형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셈여림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셈여림’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셜여림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성별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56	32.0	11	8.3	20	19.6	25	24.0	22	21.6	25	11.6	42	45.7
나. 약간 모른다	37	21.1	30	22.6	21	20.6	23	22.1	23	22.5	44	20.4	23	25.0
다. 보통이다	49	28.0	39	29.3	32	31.4	22	21.2	34	33.3	66	30.6	22	23.9
라. 약간 안다	22	12.6	32	24.1	15	14.7	22	21.2	17	16.7	51	23.6	3	3.3
마. 매우 잘 안다	11	6.3	21	15.8	14	13.7	12	11.5	6	5.9	30	13.9	2	2.2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셜여림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18.9%, 여: 39.9%)하고 있으며, ‘모른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셜여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셜여림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셜여림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7.5%, 무: 5.5%)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셜여림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2.0%, 무: 70.7%)해 결과적

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썸여림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썸여림에 대해 약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빠르기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빠르기’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빠르기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2	18.3	7	5.3	9	8.8	16	15.4	14	13.7	8	3.7	31	33.7
나. 약간 모른다	33	18.9	16	12.0	18	17.6	16	15.4	15	14.7	34	15.7	15	16.3
다. 보통이다	53	30.3	49	36.8	39	38.2	21	20.2	42	41.2	74	34.3	28	30.4
라. 약간 안다	43	24.6	43	32.3	25	24.5	35	33.7	26	25.5	73	33.8	13	14.1
마. 매우 잘 안다	14	8.0	18	13.5	11	10.8	16	15.4	5	4.9	27	12.5	5	5.4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빠르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37.2%, 여: 17.3%)하고 있으며,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빠르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빠르기의 인지도는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각 학년별로 비슷하게 응답(중1: 26.4%, 중2: 30.8%, 중3: 28.4%)하고 있으며,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높은 수치로 응답(중1: 35.3%, 중2: 49.1%, 중3: 30.4%)하고 있어서,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빠르기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6.3%, 무: 19.5%)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빠르기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9.4%, 무: 50.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빠르기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빠르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음색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음색’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음식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51	29.1	14	10.5	21	20.6	28	26.9	16	15.7	28	13.0	37	40.2
나. 약간 모른다	37	21.1	22	16.5	18	17.6	20	19.2	21	20.6	43	19.9	16	17.4
다. 보통이다	59	33.7	46	34.6	41	40.2	26	25.0	38	37.3	78	36.1	27	29.3
라. 약간 안다	17	9.7	32	24.1	14	13.7	16	15.4	19	18.6	41	19.0	8	8.7
마. 매우 잘 안다	11	6.3	19	14.3	8	7.8	14	13.5	8	7.8	26	12.0	4	4.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16.0%, 여: 38.4%)하고 있으며, ‘모른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음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식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1.0%, 무: 13.0%)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

색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2.9%, 무: 57.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색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음색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음악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이 7가지의 이해영역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성별과 학년 그리고 레슨 경험 유무에 따라 알아보 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고, 레슨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

1) 가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가창’에 대한 성별·학 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가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27	15.4	11	8.3	14	13.7	12	11.5	12	11.8	19	8.8	19	20.7
나. 약간 못한다	37	21.1	18	13.5	19	18.6	19	18.3	17	16.7	39	18.1	16	17.4
다. 보통이다	72	41.1	64	48.1	44	43.1	43	41.3	49	48.0	102	47.2	34	37.0
라. 약간 잘한다	23	13.1	27	20.3	21	20.6	14	13.5	15	14.7	36	16.7	14	15.2
마. 매우 잘한다	16	9.1	13	9.8	4	3.9	16	15.4	9	8.8	20	9.3	9	9.8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41.1%, 여: 48.1%)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가창의 인지도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서로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26.0%, 무: 25.0%)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창의 인지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음색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악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기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기악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4	25.1	9	6.8	14	13.7	21	20.2	18	17.6	13	6.0	40	43.5
나. 약간 못한다	36	20.6	23	17.3	22	21.6	16	15.4	21	20.6	37	17.1	22	23.9
다. 보통이다	53	30.3	57	42.9	35	34.3	38	36.5	37	36.3	89	41.2	21	22.8
라. 약간 잘한다	30	17.1	37	27.8	25	24.5	20	19.2	22	21.6	60	27.8	7	7.6
마. 매우 잘한다	12	6.9	7	5.3	6	5.9	9	8.7	4	3.9	17	7.9	2	2.2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45.7%, 여: 24.1%)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기악에 대해 더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기악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5.7%, 무: 9.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악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23.1%, 무: 67.4%)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기악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기악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작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창작’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창작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73	41.7	35	26.5	28	27.7	41	39.4	39	38.2	63	29.3	45	48.9
나. 약간 못한다	47	26.9	45	34.1	25	24.8	36	34.6	31	30.4	69	32.1	23	25.0
다. 보통이다	38	21.7	35	26.5	33	32.7	17	16.3	23	22.5	55	25.6	18	19.6
라. 약간 잘한다	10	5.7	12	9.1	11	10.9	6	5.8	5	4.9	19	8.8	3	3.3
마. 매우 잘한다	7	4.0	5	3.8	4	4.0	4	3.8	4	3.9	9	4.2	3	3.3
합계	175	100.0	132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1.7%, 여: 26.5%)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창작의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61.4%, 무: 73.9%)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작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3.0%, 무: 6.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작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창작에 대해 잘 못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감상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감상'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감상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7	9.7			5	4.9	5	4.8	7	6.9	7	3.2	10	11.0
나. 약간 못한다	15	8.6	11	8.3	7	6.9	11	10.6	8	7.9	19	8.8	7	7.7
다. 보통이다	47	26.9	52	39.4	33	32.4	38	36.5	28	27.7	63	29.2	36	39.6
라. 약간 잘한다	45	25.7	37	28.0	32	31.4	26	25.0	24	23.8	64	29.6	18	19.8
마. 매우 잘한다	51	29.1	32	24.2	25	24.5	24	23.1	34	33.7	63	29.2	20	22.0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6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해 ‘전혀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응답한 학생이 없는데 반하여 남학생은 10%에 가까운 수치로 응답(남: 9.7%, 여: 0%)하고 있으며, ‘보통이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감상에 대해 더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감상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58.8%, 무: 41.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감상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2.0%, 무: 18.7%)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감상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감상에 대해 잘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음악 분야에서라도 레슨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활동 영역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잘 한다고 응답했다.

3. 음악적 능력

1) 시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시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시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6	9.2	5	3.8	3	3.0	8	7.8	10	9.8	10	4.7	11	12.0
나. 약간 못한다	35	20.2	22	16.5	17	16.8	20	19.4	20	19.6	35	16.4	22	23.9
다. 보통이다	66	38.2	55	41.4	39	38.6	41	39.8	41	40.2	83	38.8	38	41.3
라. 약간 잘한다	40	23.1	36	27.1	34	33.7	21	20.4	21	20.6	64	29.9	12	13.0
마. 매우 잘한다	16	9.2	15	11.3	8	7.9	13	12.6	10	9.8	22	10.3	9	9.8
합계	173	100.0	133	100.0	101	100.0	103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시창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

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38.2%, 여: 41.4%)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시창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시창 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21.1%, 무: 35.9%)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시창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0.2%, 무: 22.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시창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시창 능력에 대해 보통보다 잘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음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청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청음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0	23.3	13	9.9	12	12.1	20	19.6	21	20.6	21	9.9	32	35.2
나. 약간 못한다	46	26.7	41	31.3	33	33.3	32	31.4	22	21.6	66	31.1	21	23.1
다. 보통이다	48	27.9	46	35.1	30	30.3	24	23.5	40	39.2	65	30.7	29	31.9
라. 약간 잘한다	23	13.4	21	16.0	16	16.2	19	18.6	9	8.8	38	17.9	6	6.6
마. 매우 잘한다	15	8.7	10	7.6	8	8.1	7	6.9	10	9.8	22	10.4	3	3.3
합계	172	100.0	131	100.0	99	100.0	102	100.0	102	100.0	212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청음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7.9%, 여: 35.1%)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0.0%, 여: 41.2%)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청음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청음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청음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3%, 무: 9.9%)하고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2.9%, 여: 51.5%)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2.8%, 여: 27.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음악 이론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이론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2%, 무: 10.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이론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9.1%, 무: 52.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이론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이론 능력을 '보통'의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민요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민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민요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1	23.8	15	11.3	17	16.8	19	18.3	20	20.0	28	13.1	28	30.8
나. 약간 못한다	54	31.4	47	35.3	33	32.7	43	41.3	25	25.0	75	35.0	26	28.6
다. 보통이다	63	36.6	60	45.1	40	39.6	34	32.7	49	49.0	90	42.1	33	36.3
라. 약간 잘한다	9	5.2	9	6.8	8	7.9	7	6.7	3	3.0	16	7.5	2	2.2
마. 매우 잘한다	5	2.9	2	1.5	3	3.0	1	1.0	3	3.0	5	2.3	2	2.2
합계	172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민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8.1%, 여: 8.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민요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민요 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48.1%, 무: 59.4%)하고 있다.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민요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2.1%, 무: 36.3%)해 결

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민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민요 능력에 대해 보통보다 못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휘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지휘'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지휘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74	42.3	19	14.3	32	31.4	35	33.7	26	25.5	48	22.2	45	48.9
나. 약간 못한다	42	24.0	36	27.1	22	21.6	29	27.9	27	26.5	54	25.0	24	26.1
다. 보통이다	44	25.1	57	42.9	35	34.3	28	26.9	38	37.3	82	38.0	19	20.7
라. 약간 잘한다	10	5.7	17	12.8	9	8.8	11	10.6	7	6.9	25	11.6	2	2.2
마. 매우 잘한다	5	2.9	4	3.0	4	3.9	1	1.0	4	3.9	7	3.2	2	2.2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지휘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

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5.1%, 여: 42.9%)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6.3%, 여: 41.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지휘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지휘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지휘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4.8%, 무: 4.4%)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지휘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7.2%, 무: 75.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휘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지휘 능력을 약간 못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합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합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합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32	18.4	7	5.3	14	13.7	14	13.6	11	10.8	18	8.4	21	22.8
나. 약간 못한다	44	25.3	14	10.5	19	18.6	18	17.5	21	20.6	35	16.3	23	25.0
다. 보통이다	61	35.1	67	50.4	44	43.1	40	38.8	44	43.1	98	45.6	30	32.6
라. 약간 잘한다	27	15.5	32	24.1	18	17.6	24	23.3	17	16.7	46	21.4	13	14.1
마. 매우 잘한다	10	5.7	13	9.8	7	6.9	7	6.8	9	8.8	18	8.4	5	5.4
합계	174	100.0	133	100.0	102	100.0	103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합창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5.1%, 여: 50.4%)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3.7%, 여: 15.8%)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합창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합창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합창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9.8%, 무: 19.5%)하

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합창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4.7%, 무: 47.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합창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합창 능력을 약간 잘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단소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단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단소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38	21.7	17	12.8	15	14.7	23	22.1	17	16.7	30	13.9	25	27.2
나. 약간 못한다	43	24.6	31	23.3	27	26.5	25	24.0	22	21.6	51	23.6	23	25.0
다. 보통이다	48	27.4	39	29.3	28	27.5	23	22.1	36	35.3	61	28.2	26	28.3
라. 약간 잘한다	29	16.6	35	26.3	25	24.5	22	21.2	17	16.7	55	25.5	9	9.8
마. 매우 잘한다	17	9.7	11	8.3	7	6.9	11	10.6	10	9.8	19	8.8	9	9.8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단소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7.4%, 여: 29.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단소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단소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4.3%, 무: 19.6%)하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단소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단소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단소 능력에 대해 보통인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장구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장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장구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57	32.8	31	23.3	33	32.7	25	24.0	30	29.4	48	22.3	40	43.5
나. 약간 못한다	59	33.9	34	25.6	33	32.7	34	32.7	26	25.5	67	31.2	26	28.3
다. 보통이다	35	20.1	49	36.8	26	25.7	27	26.0	31	30.4	64	29.8	20	21.7
라. 약간 잘한다	16	9.2	13	9.8	7	6.9	13	12.5	9	8.8	26	12.1	3	3.3
마. 매우 잘한다	7	4.0	6	4.5	2	2.0	5	4.8	6	5.9	10	4.7	3	3.3
합계	174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장구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1%, 여: 36.8%)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6.7%, 여: 48.9%)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장구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장구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장구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6.8%, 무: 6.6%)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장구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53.5%, 무: 71.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장구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장구 능력을 약간 못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리코더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리코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리코더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6	9.2	3	2.3	4	4.0	8	7.8	7	7.0	4	1.9	15	16.5
나. 약간 못한다	35	20.2	8	6.1	16	15.8	15	14.6	12	12.0	24	11.3	19	20.9
다. 보통이다	65	37.6	48	36.6	36	35.6	35	34.0	42	42.0	76	35.7	37	40.7
라. 약간 잘한다	34	19.7	38	29.0	29	28.7	22	21.4	21	21.0	59	27.7	13	14.3
마. 매우 잘한다	23	13.3	34	26.0	16	15.8	23	22.3	18	18.0	50	23.5	7	7.7
합계	173	100.0	131	100.0	101	100.0	103	100.0	100	100.0	213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코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3.0%, 여: 55.0%)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29.4%, 여: 8.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리코더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리코더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코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51.2%, 무: 22.0%)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리코더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13.2%, 무: 37.4%)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리코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리코더 능력을 잘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바이올린’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29	73.7	84	63.6	80	78.4	75	72.1	58	57.4	143	66.5	70	76.1
나. 약간 못한다	23	13.1	18	13.6	11	10.8	14	13.5	16	15.8	28	13.0	13	14.1
다. 보통이다	14	8.0	15	11.4	4	3.9	8	7.7	17	16.8	23	10.7	6	6.5
라. 약간 잘한다	6	3.4	10	7.6	5	4.9	4	3.8	7	6.9	14	6.5	2	2.2
마. 매우 잘한다	3	1.7	5	3.8	2	2.0	3	2.9	3	3.0	7	3.3	1	1.1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8.0%, 여: 11.4%)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바이올린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9.8%, 무: 3.3%)하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바이올린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

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바이올린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전혀 못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피아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피아노'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피아노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7	26.9	13	9.8	18	17.6	22	21.2	20	19.6	12	5.6	48	52.2
나. 약간 못한다	37	21.1	28	21.1	23	22.5	25	24.0	17	16.7	42	19.4	23	25.0
다. 보통이다	55	31.4	34	25.6	28	27.5	28	26.9	33	32.4	75	34.7	14	15.2
라. 약간 잘한다	23	13.1	41	30.8	27	26.5	16	15.4	21	20.6	60	27.8	4	4.3
마. 매우 잘한다	13	7.4	17	12.8	6	5.9	13	12.5	11	10.8	27	12.5	3	3.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피아노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5%, 여: 43.6%)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8.0%, 여: 30.9%)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피아노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피아노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피아노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0.3%, 무: 7.6%)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피아노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5.0%, 무: 77.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아노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피아노 능력을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능력은 학년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4. 음악적 관심도

1)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교과’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6>과 같다.

<표26>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4	31.0	13	9.8	15	14.9	23	22.1	29	28.4	34	15.8	33	35.9
나. 약간 관심 없다	43	24.7	30	22.6	18	17.8	29	27.9	26	25.5	50	23.3	23	25.0
다. 보통이다	49	28.2	59	44.4	38	37.6	35	33.7	35	34.3	87	40.5	21	22.8
라. 약간 관심 있다	22	12.6	24	18.0	23	22.8	12	11.5	11	10.8	35	16.3	11	12.0
마. 매우 관심 있다	6	3.4	7	5.3	7	6.9	5	4.8	1	1.0	9	4.2	4	4.3
합계	174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6.0%, 여: 23.3%)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5.7%, 여: 32.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교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심 있다’고 응답(중1: 29.7%, 중2: 16.3%, 중3: 11.8%)한 경우 학년이 낮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순서로 나타났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0.5%, 무: 16.3%)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9.1%, 무: 60.9%)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 동아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3	42.0	24	18.0	26	25.5	41	39.4	30	29.7	51	23.7	46	50.0
나. 약간 관심 없다	45	25.9	35	26.3	30	29.4	25	24.0	25	24.8	67	31.2	13	14.1
다. 보통이다	32	18.4	42	31.6	19	18.6	23	22.1	32	31.7	52	24.2	22	23.9
라. 약간 관심 있다	19	10.9	22	16.5	20	19.6	11	10.6	10	9.9	32	14.9	9	9.8
마. 매우 관심 있다	5	2.9	10	7.5	7	6.9	4	3.8	4	4.0	13	6.0	2	2.2
합계	174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3.8%, 여: 24.0%)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7.9%, 여: 44.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동아리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0.9%, 무: 12.0%)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4.9%, 무: 64.1%)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연주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 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8>과 같다.

<표28>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1	40.6	14	10.8	31	30.4	28	27.2	26	26.0	41	19.2	44	48.4
나. 약간 관심 없다	27	15.4	37	28.5	24	23.5	18	17.5	22	22.0	48	22.4	16	17.6
다. 보통이다	51	29.1	41	31.5	23	22.5	31	30.1	38	38.0	74	34.6	18	19.8
라. 약간 관심 있다	18	10.3	26	20.0	13	12.7	20	19.4	11	11.0	34	15.9	10	11.0
마. 매우 관심 있다	8	4.6	12	9.2	11	10.8	6	5.8	3	3.0	17	7.9	3	3.3
합계	175	100.0	130	100.0	102	100.0	103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4.9%, 여: 29.2%)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6.0%, 여: 39.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연주회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3.8%, 무: 14.3%)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41.6%, 무: 66.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대중 가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9>와 같다.

<표29>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37	21.1	5	3.8	14	13.7	13	12.5	15	14.7	17	7.9	25	27.2
나. 약간 관심 없다	20	11.4	10	7.5	6	5.9	12	11.5	12	11.8	19	8.8	11	12.0
다. 보통이다	35	20.0	19	14.3	17	16.7	15	14.4	22	21.6	39	18.1	15	16.3
라. 약간 관심 있다	31	17.7	28	21.1	20	19.6	20	19.2	19	18.6	42	19.4	17	18.5
마. 매우 관심 있다	52	29.7	71	53.4	45	44.1	44	42.3	34	33.3	99	45.8	24	26.1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47.4%, 여: 74.5%)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32.5%, 여: 11.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대중 가요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65.2%, 무: 44.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6.7%, 무: 39.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0>과 같다.

<표30>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3	30.8	12	9.1	22	22.0	23	22.1	20	20.0	35	16.4	30	33.0
나. 약간 관심 없다	24	14.0	25	18.9	17	17.0	9	8.7	23	23.0	33	15.5	16	17.6
다. 보통이다	40	23.3	40	30.3	23	23.0	29	27.9	28	28.0	60	28.2	20	22.0
라. 약간 관심 있다	34	19.8	43	32.6	24	24.0	33	31.7	20	20.0	59	27.7	18	19.8
마. 매우 관심 있다	21	12.2	12	9.1	14	14.0	10	9.6	9	9.0	26	12.2	7	7.7
합계	172	100.0	132	100.0	100	100.0	104	100.0	100	100.0	213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2.0%, 여: 41.7%)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4.8%, 여: 28.0%)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9.9%, 무: 27.5%)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1.9%, 무: 50.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판소리, 민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8	44.6	44	33.3	37	36.3	49	47.1	36	35.6	75	34.9	47	51.1
나. 약간 관심 없다	44	25.1	46	34.8	34	33.3	24	23.1	32	31.7	69	32.1	21	22.8
다. 보통이다	42	24.0	32	24.2	26	25.5	21	20.2	27	26.7	55	25.6	19	20.7
라. 약간 관심 있다	10	5.7	8	6.1	5	4.9	9	8.7	4	4.0	14	6.5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1	.6	2	1.5			1	1.0	2	2.0	2	.9	1	1.1
합계	175	100.	132	100.	102	100.	104	100.	101	100.	215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4.0%, 여: 24.2%)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7.4%, 무: 5.4%)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약간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국악 기악곡’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86	49.4	47	35.6	41	40.2	54	51.9	38	38.0	85	39.7	48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41	23.6	50	37.9	36	35.3	22	21.2	33	33.0	68	31.8	23	25.0
다. 보통이다	35	20.1	26	19.7	18	17.6	21	20.2	22	22.0	46	21.5	15	16.3
라. 약간 관심 있다	9	5.2	7	5.3	6	5.9	5	4.8	5	5.0	12	5.6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3	1.7	2	1.5	1	1.0	2	1.9	2	2.0	3	1.4	2	2.2
합계	174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

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0.1%, 여: 19.7%)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7.0%, 무: 6.5%)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팝송’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3>과 같다.

<표33>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1	29.1	25	18.8	23	22.5	31	29.8	22	21.6	47	21.8	29	31.5
나. 약간 관심 없다	28	16.0	29	21.8	15	14.7	20	19.2	22	21.6	40	18.5	17	18.5
다. 보통이다	41	23.4	35	26.3	27	26.5	21	20.2	28	27.5	52	24.1	24	26.1
라. 약간 관심 있다	34	19.4	28	21.1	29	28.4	16	15.4	17	16.7	49	22.7	13	14.1
마. 매우 관심 있다	21	12.0	16	12.0	8	7.8	16	15.4	13	12.7	28	13.0	9	9.8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3.4%, 여: 26.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팝송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24.1%, 무: 26.1%)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의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 정도의 관심을 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종교 음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 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87	50.6	54	41.2	41	40.6	55	52.9	45	45.9	94	44.1	47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27	15.7	29	22.1	21	20.8	18	17.3	17	17.3	43	20.2	13	14.4
다. 보통이다	31	18.0	26	19.8	24	23.8	13	12.5	20	20.4	42	19.7	15	16.7
라. 약간 관심 있다	21	12.2	10	7.6	11	10.9	9	8.7	11	11.2	22	10.3	9	10.0
마. 매우 관심 있다	6	3.5	12	9.2	4	4.0	9	8.7	5	5.1	12	5.6	6	6.7
합계	172	100.0	131	100.0	101	100.0	104	100.0	98	100.0	213	100.0	90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8.0%, 여: 19.8%)하고 있으며, ‘관심 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응답(남: 15.7%, 여: 16.8%)한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15.9%, 무: 16.7%)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약간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가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5>와 같다.

앞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영역에서는 가창을 잘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물었고 여기서부터는 가창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표35>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62	35.6	19	14.5	26	25.7	29	27.9	26	26.0	43	20.1	38	41.8
나. 약간 관심 없다	32	18.4	21	16.0	20	19.8	13	12.5	20	20.0	39	18.2	14	15.4
다. 보통이다	43	24.7	48	36.6	27	26.7	34	32.7	30	30.0	68	31.8	23	25.3
라. 약간 관심 있다	22	12.6	27	20.6	17	16.8	14	13.5	18	18.0	37	17.3	12	13.2
마. 매우 관심 있다	15	8.6	16	12.2	11	10.9	14	13.5	6	6.0	27	12.6	4	4.4
합계	174	100.0	131	100.0	101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2%, 여: 32.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4.0%, 여: 30.5%)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가창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창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9.9%, 무: 17.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3.7%, 여: 18.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0.4%, 여: 53.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기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기악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9.5%, 무: 7.7%)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2.3%, 무: 69.3%)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기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기악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창작’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

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7>과 같다.

<표37>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6	43.7	38	28.8	37	37.0	47	45.2	30	29.4	66	30.8	48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42	24.1	38	28.8	27	27.0	27	26.0	26	25.5	61	28.5	19	20.7
다. 보통이다	37	21.3	42	31.8	21	21.0	23	22.1	35	34.3	61	28.5	18	19.6
라. 약간 관심 있다	11	6.3	8	6.1	8	8.0	3	2.9	8	7.8	15	7.0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8	4.6	6	4.5	7	7.0	4	3.8	3	2.9	11	5.1	3	3.3
합계	174	100.0	132	100.0	100	100.0	104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0.9%, 여: 10.6%)하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비슷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창작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한 관심도

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5%, 무: 19.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9.3%, 무: 72.9%)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창작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감상’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8>과 같다.

<표38>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46	26.3	11	8.3	19	18.6	21	20.2	17	16.7	29	13.4	28	30.4
나. 약간 관심 없다	25	14.3	21	15.8	9	8.8	17	16.3	20	19.6	33	15.3	13	14.1
다. 보통이다	40	22.9	44	33.1	30	29.4	27	26.0	27	26.5	61	28.2	23	25.0
라. 약간 관심 있다	31	17.7	36	27.1	24	23.5	23	22.1	20	19.6	54	25.0	13	14.1
마. 매우 관심 있다	33	18.9	21	15.8	20	19.6	16	15.4	18	17.6	39	18.1	15	16.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6.6%, 여: 42.9%)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0.6%, 여: 24.1%)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감상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감상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3.1%,

무: 30.4%)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감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28.7%, 무: 44.5%)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감상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감상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 이론’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9>와 같다.

<표39>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9	45.1	31	23.3	30	29.4	42	40.4	38	37.3	60	27.8	50	54.3
나. 약간 관심 없다	39	22.3	40	30.1	27	26.5	26	25.0	26	25.5	57	26.4	22	23.9
다. 보통이다	34	19.4	45	33.8	28	27.5	25	24.0	26	25.5	66	30.6	13	14.1
라. 약간 관심 있다	13	7.4	12	9.0	10	9.8	7	6.7	8	7.8	22	10.2	3	3.3
마. 매우 관심 있다	10	5.7	5	3.8	7	6.9	4	3.8	4	3.9	11	5.1	4	4.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9.4%, 여: 33.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7.4%, 여: 53.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이론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5.3%, 무: 7.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4.2%, 무: 78.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는 생각보다 적었다. 특히 국악이나 팝송, 종교 음악 등에는 더욱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가요에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분야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겠다.

5. 음악적 자아 인식 분석

아래의 <표40>은 학생들이 음악적 자아 인식에 응답한 문항에 관한 점수이다. 여기서부터는 이 표를 토대로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였다.

<표40> 음악적 자아인식 문항별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가)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41>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N	M	t
성별	남	175	2.82(±1.31)	-2.89**
	여	132	3.23(±1.08)	
레슨경험	유	215	3.11(±1.20)	2.42*
	무	92	2.74(±1.26)	

***p<.05 **p<.01 *p<.001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82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23점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11점인데 반하여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은 2.74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보통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으며,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2>와 같다.

<표4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3	3.47(±1.31)	-2.32*
	여	133	3.78(±.97)	
레슨경험	유	214	3.74(±1.09)	3.17**
	무	92	3.28(±1.31)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47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78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74점인데 반하여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의 평균은

3.28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3>과 같다.

<표4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5	2.89(±1.30)	-4.21***
	여	133	3.47(±1.09)	
레슨경험	유	216	3.28(±1.22)	3.12**
	무	92	2.80(±1.25)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89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47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8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8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

부성과의 관련성에는 특히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에게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라)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4>와 같다.

<표4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5	3.15(±1.28)	-3.42**
	여	132	3.63(±1.13)	
레슨경험	유	216	3.56(±1.14)	4.61***
	무	91	2.87(±1.33)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15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63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56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8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에는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에게서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5>와 같다.

<표45>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N	M	t
성별	남	173	2.91(±1.22)	-1.90
	여	131	3.17(±1.14)	
레슨경험	유	212	3.20(±1.15)	4.12***
	무	92	2.60(±1.19)	

***p<.05 **p<.01 *p<.001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91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17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0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6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숙하게 될 때까지의 음악 연습의 노력성에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레슨 경험자들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6>과 같다.

<표46>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N	M	t
성별	남	175	2.60±1.29	-1.50
	여	132	2.81±1.11	
레슨경험	유	215	2.79±1.22	2.11*
	무	92	2.47±1.20	

***p<.05 **p<.01 *p<.001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60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81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79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4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성적과 관련지어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레슨 경험자들이 더 그러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7>과 같다.

<표4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N	M	t
성별	남	173	2.51(±1.24)	-.70
	여	131	2.60(±1.04)	
레슨경험	유	216	2.66(±1.13)	2.69**
	무	88	2.27(±1.19)	

***p<.05 **p<.01 *p<.001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51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60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66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2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음악 성적에 있어서 자기 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 경험자들이 더 자기 평가를 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8>과

같다.

<표48>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N	M	t
성별	남	174	2.69(±1.32)	-2.60*
	여	132	3.05(±.99)	
레슨경험	유	214	3.05(±1.12)	4.69***
	무	92	2.37(±1.24)	

***p<.05 **p<.01 *p<.001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69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05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05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3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평가보다 오히려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는 받아 본 학생이 타인 평가를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9>와 같다.

<표49>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4	2.52(±1.24)	-1.11
	여	133	2.68(±1.15)	
레슨경험	유	215	2.70(±1.18)	2.43*
	무	92	2.34(±1.21)	

***p<.05 **p<.01 *p<.001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52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68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70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34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음악 수업과 실생활과는 관련성을 적게 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응답했다.

차)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0>과 같다.

<표5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5	1.78(±1.16)	-1.14
	여	131	1.80(±1.09)	
레슨경험	유	214	1.87(±1.18)	1.86
	무	92	1.61(±1.01)	

***p<.05 **p<.01 *p<.001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1.78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1.80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1.87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1.61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는 집에서 거의 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1>과 같다.

<표5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4	3.86(±1.36)	-3.16**
	여	132	4.30(±1.02)	
레슨경험	유	215	4.24(±1.08)	4.18***
	무	91	3.60(±1.47)	

***p<.05 **p<.01 *p<.00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86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4.30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4.24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3.6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음악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음악을 더 자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음악 레슨의 필요성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2>와 같다.

<표52> 음악 레슨의 필요성

		N	M	t
성별	남	174	2.98(±1.42)	-2.86**
	여	131	3.40(±1.11)	
레슨경험	유	215	3.24(±1.23)	1.68
	무	90	2.97(±1.48)	

***p<.05 **p<.01 *p<.001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98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40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4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97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 <표53>은 학년별 음악적 자아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이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레슨의 필요성에서만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학년별 음악적 자아인식

학년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집단간	1.66	2	.83	.55	.58
	집단내	461.34	304	1.52		
	합	463.00	306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집단간	6.32	2	3.16	2.28	.10
	집단내	418.84	303	1.38		
	합	425.15	305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집단간	9.71	2	4.85	.031	.97
	집단내	476.90	305	1.56		
	합	477.00	307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집단간	1.25	2	.62	.40	.67
	집단내	469.05	304	1.54		
	합	470.30	306			
능숙하게 될 때까지의 음악 연습의 노력성	집단간	4.44	2	2.22	1.57	.21
	집단내	425.44	301	1.41		
	합	429.89	303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집단간	2.90	2	1.45	.98	.38
	집단내	450.71	304	1.49		
	합	453.60	306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집단간	3.19	2	1.60	1.19	.31
	집단내	404.07	301	1.34		
	합	407.26	303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집단간	2.75	2	1.37	.96	.39
	집단내	435.72	303	1.45		
	합	438.47	305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집단간	5.98	2	2.99	2.09	.13
	집단내	434.31	304	1.43		
	합	440.29	306			

학년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집단간	.77	2	.38	.30	.74
	집단내	389.85	303	1.29		
	합	390.61	305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집단간	.26	2	.132	.085	.92
	집단내	470.00	303	1.55		
	합	470.27	305			
음악 레슨의 필요성	집단간	17.94	2	8.97	5.36	.01
	집단내	505.19	302	1.67		
	합	523.13	304			

음악적 자아 인식에서는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음악 레슨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가족과의 연주라든지 음악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과반수가 넘었다. 학생들이 음악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그들의 자아 인식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6. 요약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음악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들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의 인지도는 아래와 같다. 이해 영역의 7가지 즉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중에 빠르기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리듬과 가락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셈여림과 형식, 화성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들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의 인지도는 아래와 같다. 활동 영역의 4가지 즉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중에 감상 영역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창과 기악, 창작 순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은 아래와 같다. 합창과 리코더, 시창에 대한 능력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음악이론과 단소, 피아노 능력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밖에 청음과 지휘 능력, 민요와 장구 능력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소수의 학생들만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중학생들의 음악적 관심도는 아래와 같다. 먼저 대중 가요에 대해서 학생들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클래식 음악과 감상, 가창 등의 순으로 관심이 나타났다. 팝송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관심을 보였고 음악교과나 동아리, 연주회, 종교음악과 기악, 창작, 이론 부분에선 약간 낮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국악에 대해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여서 판소리, 민요, 국악 기악곡 등의 관심도를 묻는 부분에선 대다수의 학생들이 '관심 없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자아 인식은 아래와 같다. 중학생들은 음악교육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안정감과 상상력의 풍부해짐 그리고 감정 표현력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은 필요하고 능숙해질 때까지 끝까지 연습하며 음악을 자주 듣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성적과 관련 없이도 자발적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적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고 음악 실기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는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보다는 타인평가를 더 잘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음악 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는 적으며 학생들은 집에서 가족과 연주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사춘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중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중학생들의 성격과 태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음악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하여 우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았고 더불어 그들의 음악적 능력과 관심도, 자아 인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 s 중학교 1, 2, 3학년(각 102명, 104명,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이 연구에 나타난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셈여림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고 있었고 화성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감상 영역에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 창작 영역에는 자신 없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능력에 대해서는 합창과 리코더, 감상 능력에는 강한테 비해 민요나 장구 같은 국악 능력은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시창이나 단소, 음악 이론, 피아노 같은 것에는 보통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관심도에 대해서는 대중 가요에는 높은 관심을 보인데 반하여 국악 기악곡이나 판소리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과나 연주회, 동아리 등에는 보통의 관심을 보였다.

음악적 자아 인식에서는 음악교육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음악 레슨은 필요하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한 반면 음악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한다는 학생들의 응답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레슨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없는 학생의 관심이 저조했다. 그리고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중시하여 음악 교과를 소홀히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학교 음악 수업에 중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수업 기술을 도입한다면 수업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저조한 국악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국악 교육을 음악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국악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과 대중 가요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하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의 내용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

교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수업을 할 때 비로소 중학생들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음악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 인적 자원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서우석. 『서우석 음악 논집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1986.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풍남,
1996.

이성삼. 『음악 교수법』, 세광 음악 출판사, 198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 음악 출판사, 1990.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 음악 출판사, 1993.

장 피아제. 『교육론』, 동문선.

<논문>

강은경. “청소년의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2003.

고현.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선혜. “현장 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 음악학회, 2000.

김혜경. “TV방송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 19호, 민족 음악 학회, 2000.

백연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음악선호도 조사 비교 연구” 영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정연, 이윤경.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
집, 민족음악연구회, 1990.

주수정.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music contents and preference of middle school in music education

Ji hyun kim

The Music curriculum is remained worthless education that student studying important of an entrance exam, but musical influence is proved by many researcher. Musics have to go together man's all life regardless age furthermore adolescence, making rational decision hard, have to be given opportunity to learn instructive music in other to take care of their mind and music teachers guide juvenile know right recognition and enjoying music during school hours.

It's very useful for music teacher to know what students prefer for music or what they appreciate one. It should be very helpful when students know how much talents they got and what kind of music they like and what they think about the music educations.

In this paper, musical preference investig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 through their conscious of music in mind and in common can help to find valuable musical education.

부록(설문지)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조사 연구

남() 여() 학년()

레슨 경험 : 유() 무()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음악적 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로 학위 논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4월

※ 다음 문항을 보고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모른다	약간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안다	매우 잘 안다
1	리듬					
2	가락					
3	화성					
4	형식					
5	셈여림					
6	빠르기					
7	음색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못한다	약간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가창(노래 부르기)					
2	기악(악기 연주)					
3	창작(짧은곡 만들기)					
4	감상(음악 듣기)					

3. 음악적 능력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못한다	약간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시창 (보고 부르기)					
2	청음(듣고 적기)					
3	음악이론(필기 내용)					
4	민요					
5	지휘					
6	합창					
7	단소					
8	장구					
9	리코더					
10	바이올린					
11	피아노					

4.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도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관심 없다	약간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음악 교과					
2	음악 동아리					
3	연주회					
4	대중 가요					
5	클래식 음악					
6	판소리, 민요					
7	국악 기악곡					
8	팝송					
9	종교 음악					
10	가창					
11	기악					
12	창작					
13	감상					
14	이론					

5. 음악적 자아 인식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는 관련이 있다.					
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은 관련이 있다.					
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은 관련이 있다.					
5	능숙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한다.					
6	음악교육은 성적과 관련 없이 중요하다.					
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가 가능하다.					
8	다른 사람의 연주나 노래의 평가가 가능하다.					
9	수업시간의 배움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1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한다.					
11	음악을 자주 듣는다.					
12	음악 레슨은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중 음악과의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¹⁾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중요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음악교육자들은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 자라나는 시절에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 p 2, 28

특히 사춘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중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학생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성격과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음악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음악 활동이 개개인이 지니는 인간적인 속성과 인간의 삶의 특성, 음악의 본질과 가치, 사회적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들은 현대 사회의 일반 학교에서 음악이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여야 한다는 믿음을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과 교육내용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설문 조사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다.
- 2)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한다.
- 3) 학생들의 음악적 관심도를 조사한다.
- 4) 학생들의 음악적 자아개념 인지도를 조사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음악과 교육내용 및 선호도 조사에 있어 서울시의 s 중학교로 제한하여 중학생을 대표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본 집단의 학년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1. 중학생과 음악 활동

가장 대표적인 음악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한 Piaget의 인지 발달이론은 신체적 성숙과 지적인 성숙이 전제되어야 학습이 가능한 단계로 진행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동화, 조절, 평형 상태를 통해 인지적 구조가 성장 발달하고 이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을 수용하고 학습자의 지적인 도식을 수정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Piaget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Piaget는 형식적 조작기(11-15세)를 인지 발달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 형식적 조작단계의 아동은 논리적 조작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사고의 질적 잠재력은 형식적 조작이 성취될 때 최고조에 달한다.

기능적으로 볼 때 형식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는 그들이 다같이 논리적 조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둘의 차이는 형식적 사고가 되는 아동은 논리적 조작을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데 비해 구체적 사고는 현재의 구체적 문제를 푸는데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조작이 되는 아동은 모든 종류의 문제(현재, 미래, 과거, 가설적 언어 등)를 다룰 수 있으나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문제를 하나하나 떼어서 다룰 수밖에 없다.

Piaget의 이론을 통해 학습은 학습자의 지적인 준비상태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학습자에게 가능한 학습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이론으로 꼽힌다.

Piaget의 말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학생들의 인지 구조는 대체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서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논리에 의해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Piaget는 중학생들이 이 기간에 가설적 언어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과학적 추리와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는 그 본질상 가설 연역적 사고이며, 명제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 시기의 중학생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 또는 구체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닌 미래를 가상할 수도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인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음악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시기는 감성적, 지적으로 음악적인 성취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술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로 형식적 조작기의 중학생들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중학교 음악과는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기초적인 음악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악곡의 의미와 통찰을 바탕

2) 장 피아제 “교육론”, 동문선

으로 감상과 연주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적극 그들의 연주활동을 유도하고 음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중학생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중요한 존재이므로 신체적 건강은 물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더욱이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식과 인간성 상실로 인해, 중학생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학생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인간미의 상실을 겪는 이 때 이들에게 인간미와 정서의 함양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로는 음악, 영화, 연극, 독서 및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레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모두가 중학생의 정신 건강과 정서 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 중 중학생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다.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허용해주면서 그들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해 주어야 하겠다. 다음 표는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3) 김혜경 “TV방송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 19호, 민족 음악 학회, 2000, p 244-245

<표 1> Piaget의 발달 단계와 가능한 음악 활동

발달 달령	발달 심리적 특징	음악적 성장
형식적 11 15 조작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성숙으로 논리적 조작을 폭넓게 적용 · 가설적인 언어 문제를 다룸 · 가설설정과 검토 · 성인과 같은 사고의 형태를 갖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적, 지적으로 음악적인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 예술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기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 · 악곡의 의미와 통찰을 바탕으로 감상과 연주활동을 유도하여 음악 문화를 향유하도록 지도

2. 음악 교육의 중요성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학교 음악 교육은 주로 음악 외적 가치를 근거로 정당화되어 왔다. 이 시대에 음악 교육은 사회를 위해 실제적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면, Platon은 음악 교육이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유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하였다. 18세기에는 음악이 민족주의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1830년대의 미국의 Lowell Mason은 음악이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과 지적 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악을 교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Boston의 공립학교들로 하여금 음악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4)

인간 역사를 통하여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문화의 영속성과 미적인 삶의 고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삶을 위한 기술의 습득, 개개인의 주체성 구축, 창조성의 계발이 공교육의 근본으로, 음악을 통하여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음악교육이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Tanglewood 선언처럼 음악은 현대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육과목이자 생활 수단인 것이다.

교과로서의 위치 역시 확고하다. 과거 주지주의 입장에서 IQ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문 중심적인 교과가 교과로서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교과 성격규정으로 학문적인 면 이외에 실용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실과, 기술 같은 과목을 모두 교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인간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감성지수(EQ)의 중대성이 증가됨에 따라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위상은 이미 확고하고, 외국의 경우 초등 교육에서도 점차 핵심교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4) 이홍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96-97

경우 불행하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의 운용으로 말미암아 음악 교과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주변 교과로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보고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교과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과정에 음악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볼 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음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역할이 학생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하는 것이 라면 음악은 학교 교육 과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다. 또한 음악은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로서 인간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 왔다. 어느 시대, 문화, 인종을 망라하고 음악이 있어 왔는데,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추구되어 왔고, 인간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에 학교 음악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개인의 감정표현을 위한 매개체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내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 및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소개하여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

의 잠재성에 대하여 알고 학생들이 음악을 탐구하여 표현적 매개체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⁵⁾

학교의 음악교육은 국민의 공통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적 성격을 띤 음악교육으로서, 국민의 전체성을 고려한 예술교육의 한 일환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음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음악교육의 결핍이 인간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음악교과의 제자리 찾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⁶⁾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의 이해 영역에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학교급별, 학년급별에 따라 학습되어야 할 음악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음악 개념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모든 음악 개념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음악적 이해는 개개의 음악 요소의 구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음악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므로 이들 개념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은 많은 개념들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음악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

5)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풍남, 1996, p 2-3

6)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교육 인적 자원부 p. 105, 108, 113, 114

서 각 학년별로 제시되는 개념은 한 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심화하여 학습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했던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되거나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감각적 경험을 주로 하던 학습 형태로부터 지적, 논리적 사고도 중히 여기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

음악 개념은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여 주는 음악 행위를 통하여 학생의 음악적 이해를 관찰하여 파악하게 되므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의 ‘활동’ 영역은 제6차 교육 과정의 표현과 감상 영역을 음악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감상 활동은 학생이 음악을 집중하여 들으며 음악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악곡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노래나 연주를 들으면서, 자신이 만든 곡을 들으면서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음악을 듣는 행위는 음악 수업에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상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음악의 주요 네 가지 활동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제7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활동의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구분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지,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에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창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가창 중심의 수업에서, 기악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기악 중심의 수업에서, 창작 영역과 감상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은 각각 창작 중심의 수업, 감상 중심의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음악수업에서는 1시간에 하나의 활동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 교사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두 가지 활동,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 수업은 위에서 제시한 음악 개념의 이해와 활동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음악적 선호도와 방향 제시

선호도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때때로 취향과 혼용되지만, 취향이 전체적이고 긴 안목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선호도는 특정한 대상에 관한 것이며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악 선호도는 어떤 특정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이며 반복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전하고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⁷⁾

중학생들이 주로 듣는 음악은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된 것이거나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것이어서 그들의 음악적 필요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학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있는지를 인식하기도 전에 일시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된 오락적인 음악만을 듣게 될 경우 그들

7) 강은경 “청소년의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2003, p 4

은 평생을 통해 그러한 음악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사는 인식해야 한다.⁸⁾

중학생들이 듣고 부르는 음악과 노래는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나타나는 가사의 내용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규범을 비교적 명백히 드러내어주며 그들이 듣는 음악의 구조와 그 구조를 받치고 있는 사상은 그들의 의식을 심층에서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음악 교과는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로 확장해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비록 전문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 음악 교육일 것이다.¹⁰⁾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역시 ‘전문음악가의 배출’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춘 인격형성’이 적합한 교육목적일 것이다. 이는 곧 ‘음악의 바람직한 체험’을 통해 풍부한 정서와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참다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¹¹⁾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중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8)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3, p 284

9) 서우석 “서우석 음악 논집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1986, p 173

10) 김선혜 “현장 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음악학회, 2000, p 56-57

11) 정정연, 이윤경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집, 민족음악연구회, 1990, p 137

체험을 통하여 익히게 되므로 음악교육은 ‘미적 체험의 교육’이라는 인식 위에서 교육적 실천의 기틀을 잡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적 체험을 함으로써 미의식을 배양해 그들의 음악미의 감상능력과 창작능력이 풍부해지게 함과 동시에 자연, 인생 그 밖의 모든 방면에 대해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음악가나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창조적인 자기표현의 함양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으로 인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¹²⁾

인간이 지닌 창조의 본능적인 욕구를 음악 학습 활동을 통하여 충족, 향상, 발전시킨다는 것이 개인의 잠재적인 음악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민족 음악의 창조와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³⁾

음악 교과 교사는 물론 음악 교과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육 현장에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길러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음악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음악 인지도를 바르게 알고 그들의 수준과 선호도에 맞게 음악 교육을 실시한다면 중학생들에게 있어 음악 과목의 위상은 높아지고 수업의

12) 이성삼 “음악 교수법” 세광 음악 출판사, 1982, p 16

13) 주수정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6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즉 이해와 활동 영역을 토대로 중학생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음악 능력, 관심도, 음악적 자아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학교 음악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 이 다섯 개의 영역은 음악에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해와 활동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소개되고 있다. 음악의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음악 능력과 그들의 관심도, 음악적 자아 인식 등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교육 내용의 실태를 알 수 있으므로 다섯 개의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기간 및 대상

이 연구는 2005년 3월, 4월에 서울 소재 s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로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통계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남·여 공학인 s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중학교에 총 3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 돌아오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 308부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97.78%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2> 대상 학생 현황

학년	표본수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1년	102명	62명	40명
중학교 2년	104명	57명	47명
중학교 3년	102명	56명	46명

2.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중학생들의 음악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48개 항목의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음악적 능력 및 관심도와 생각에 대한 내용 등의 기초적인 물음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10명을 실시하여 문제되는 문항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3> 영역별 내용

영역	조사내용	문항
이해 영역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7문항
활동 영역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문항
음악적 능력	시창, 청음, 이론, 민요, 지휘, 합창, 단소, 장구, 리코더, 바이올린, 피아노	11문항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음악교과, 음악동아리, 연주회, 대중가요, 클래식, 판소리·민요, 국악 기악곡, 팝송, 종교음악,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14문항
음악적 자아 인식	음악과 청소년교육·정서적 안정감·상상력 풍부·감정 표현과의 관련성, 끝까지 노력의 여부, 성적과 관련 없이 음악의 중요성, 성적의 자기평가와 타인 평가 가능, 음악의 실생활의 도움 여부, 가족과의 악기연주, 음악 감상의 생활화, 레슨의 필요성	12문항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설문에서는 성별과 학년 그리고 레슨 경험의 유무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레슨 경험이란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사교육이나 특기 적성을 통해 음악을 배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성악 레슨이나 기악 레슨 등 모든 레슨 경험을 포함한다.

가) 리듬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리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리듬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2	18.3	2	1.5	9	8.8	10	9.6	15	14.7	8	3.7	26	28.3
나. 약간 모른다	32	18.3	20	15.0	10	9.8	25	24.0	17	16.7	31	14.4	21	22.8
다. 보통이다	54	30.9	53	39.8	35	34.3	31	29.8	41	40.2	76	35.2	31	33.7
라. 약간 안다	40	22.9	34	25.6	32	31.4	23	22.1	19	18.6	65	30.1	9	9.8
마. 매우 잘 안다	17	9.7	24	18.0	16	15.7	15	14.4	10	9.8	36	16.7	5	5.4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36.6%, 여: 16.5%)하고 있으며, ‘보통이다’와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리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리듬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듬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6.8%, 무: 15.2%)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리듬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

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리듬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은 리듬의 인지도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가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3	19.1	8	6.0	9	8.8	17	16.7	15	14.7	11	5.1	30	32.6
나. 약간 모른다	38	22.0	21	15.8	17	16.7	23	22.5	19	18.6	39	18.2	20	21.7
다. 보통이다	63	36.4	48	36.1	35	34.3	35	34.3	41	40.2	77	36.0	34	37.0
라. 약간 안다	27	15.6	38	28.6	31	30.4	17	16.7	17	16.7	63	29.4	2	2.2
마. 매우 잘 안다	12	6.9	18	13.5	10	9.8	10	9.8	10	9.8	24	11.2	6	6.5
합계	173	100.0	133	100.0	102	100.0	102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락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41.1%, 여: 21.8%)하고 있으며,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가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락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락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0.6%, 무: 8.7%)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락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락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생들은 가락의 인지도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화성’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화성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68	39.3	33	25.0	39	38.2	38	37.6	24	23.5	54	25.2	47	51.6
나. 약간 모른다	43	24.9	33	25.0	22	21.6	28	27.7	26	25.5	56	26.2	20	22.0
다. 보통이다	36	20.8	42	31.8	24	23.5	19	18.8	35	34.3	62	29.0	16	17.6
라. 약간 안다	18	10.4	19	14.4	13	12.7	10	9.9	14	13.7	31	14.5	6	6.6
마. 매우 잘 안다	8	4.6	5	3.8	4	3.9	6	5.9	3	2.9	11	5.1	2	2.2
합계	173	100.0	132	100.0	102	100.0	101	100.0	102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화성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5.0%, 여: 18.2%)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화성 인지도는 각 빈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화성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화성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9.6%, 무: 8.8%)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낮은 수치로 응답(유: 51.4%, 무: 73.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화성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형식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형식'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형식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43	24.6	17	12.9	12	11.8	29	28.2	19	18.6	22	10.2	38	41.8
나. 약간 모른다	43	24.6	37	28.0	30	29.4	27	26.2	23	22.5	60	27.8	20	22.0
다. 보통이다	53	30.3	44	33.3	31	30.4	27	26.2	39	38.2	74	34.3	23	25.3
라. 약간 안다	27	15.4	25	18.9	21	20.6	15	14.6	16	15.7	45	20.8	7	7.7
마. 매우 잘 안다	3	5.1	9	6.8	8	7.8	5	4.9	5	4.9	15	6.9	3	3.3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3	100.0	102	100.0	216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형식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0.5%, 여: 25.7%)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남: 30.3%, 여:33.3%)한 학생의 경우도 비슷하여 성별에 따른 형식 인지도는 각 빈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형식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형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7.7%, 무: 11.0%)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낮은 수치로 응답(유: 38.0%, 무: 63.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형식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형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셈여림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셈여림’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셜여림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성별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56	32.0	11	8.3	20	19.6	25	24.0	22	21.6	25	11.6	42	45.7
나. 약간 모른다	37	21.1	30	22.6	21	20.6	23	22.1	23	22.5	44	20.4	23	25.0
다. 보통이다	49	28.0	39	29.3	32	31.4	22	21.2	34	33.3	66	30.6	22	23.9
라. 약간 안다	22	12.6	32	24.1	15	14.7	22	21.2	17	16.7	51	23.6	3	3.3
마. 매우 잘 안다	11	6.3	21	15.8	14	13.7	12	11.5	6	5.9	30	13.9	2	2.2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셜여림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18.9%, 여: 39.9%)하고 있으며, ‘모른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셜여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셜여림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셜여림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7.5%, 무: 5.5%)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셜여림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2.0%, 무: 70.7%)해 결과적

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섹터링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섹터링에 대해 약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빠르기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빠르기’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빠르기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32	18.3	7	5.3	9	8.8	16	15.4	14	13.7	8	3.7	31	33.7
나. 약간 모른다	33	18.9	16	12.0	18	17.6	16	15.4	15	14.7	34	15.7	15	16.3
다. 보통이다	53	30.3	49	36.8	39	38.2	21	20.2	42	41.2	74	34.3	28	30.4
라. 약간 안다	43	24.6	43	32.3	25	24.5	35	33.7	26	25.5	73	33.8	13	14.1
마. 매우 잘 안다	14	8.0	18	13.5	11	10.8	16	15.4	5	4.9	27	12.5	5	5.4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빠르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37.2%, 여: 17.3%)하고 있으며, ‘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빠르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제에 따른 빠르기의 인지도는 ‘모른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각 학년별로 비슷하게 응답(중1: 26.4%, 중2: 30.8%, 중3: 28.4%)하고 있으며,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높은 수치로 응답(중1: 35.3%, 중2: 49.1%, 중3: 30.4%)하고 있어서,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빠르기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6.3%, 무: 19.5%)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빠르기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9.4%, 무: 50.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빠르기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빠르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음색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이해 영역에서 ‘음색’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음식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모른다	51	29.1	14	10.5	21	20.6	28	26.9	16	15.7	28	13.0	37	40.2
나. 약간 모른다	37	21.1	22	16.5	18	17.6	20	19.2	21	20.6	43	19.9	16	17.4
다. 보통이다	59	33.7	46	34.6	41	40.2	26	25.0	38	37.3	78	36.1	27	29.3
라. 약간 안다	17	9.7	32	24.1	14	13.7	16	15.4	19	18.6	41	19.0	8	8.7
마. 매우 잘 안다	11	6.3	19	14.3	8	7.8	14	13.5	8	7.8	26	12.0	4	4.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16.0%, 여: 38.4%)하고 있으며, ‘모른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음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식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식에 대해 ‘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1.0%, 무: 13.0%)하고 있다.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

색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2.9%, 무: 57.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색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음색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음악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썸여림, 빠르기, 음색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이 7가지의 이해영역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성별과 학년 그리고 레슨 경험 유무에 따라 알아보 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고, 레슨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

1) 가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가창’에 대한 성별·학 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가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27	15.4	11	8.3	14	13.7	12	11.5	12	11.8	19	8.8	19	20.7
나. 약간 못한다	37	21.1	18	13.5	19	18.6	19	18.3	17	16.7	39	18.1	16	17.4
다. 보통이다	72	41.1	64	48.1	44	43.1	43	41.3	49	48.0	102	47.2	34	37.0
라. 약간 잘한다	23	13.1	27	20.3	21	20.6	14	13.5	15	14.7	36	16.7	14	15.2
마. 매우 잘한다	16	9.1	13	9.8	4	3.9	16	15.4	9	8.8	20	9.3	9	9.8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41.1%, 여: 48.1%)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가창의 인지도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서로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26.0%, 무: 25.0%)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창의 인지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음색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악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기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기악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4	25.1	9	6.8	14	13.7	21	20.2	18	17.6	13	6.0	40	43.5
나. 약간 못한다	36	20.6	23	17.3	22	21.6	16	15.4	21	20.6	37	17.1	22	23.9
다. 보통이다	53	30.3	57	42.9	35	34.3	38	36.5	37	36.3	89	41.2	21	22.8
라. 약간 잘한다	30	17.1	37	27.8	25	24.5	20	19.2	22	21.6	60	27.8	7	7.6
마. 매우 잘한다	12	6.9	7	5.3	6	5.9	9	8.7	4	3.9	17	7.9	2	2.2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남: 45.7%, 여: 24.1%)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기악에 대해 더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기악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5.7%, 무: 9.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악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23.1%, 무: 67.4%)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기악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기악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작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창작’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창작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73	41.7	35	26.5	28	27.7	41	39.4	39	38.2	63	29.3	45	48.9
나. 약간 못한다	47	26.9	45	34.1	25	24.8	36	34.6	31	30.4	69	32.1	23	25.0
다. 보통이다	38	21.7	35	26.5	33	32.7	17	16.3	23	22.5	55	25.6	18	19.6
라. 약간 잘한다	10	5.7	12	9.1	11	10.9	6	5.8	5	4.9	19	8.8	3	3.3
마. 매우 잘한다	7	4.0	5	3.8	4	4.0	4	3.8	4	3.9	9	4.2	3	3.3
합계	175	100.0	132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1.7%, 여: 26.5%)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창작의 인지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61.4%, 무: 73.9%)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작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3.0%, 무: 6.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작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창작에 대해 잘 못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감상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 교육 과정 내용 체계 활동 영역에서 '감상'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감상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7	9.7			5	4.9	5	4.8	7	6.9	7	3.2	10	11.0
나. 약간 못한다	15	8.6	11	8.3	7	6.9	11	10.6	8	7.9	19	8.8	7	7.7
다. 보통이다	47	26.9	52	39.4	33	32.4	38	36.5	28	27.7	63	29.2	36	39.6
라. 약간 잘한다	45	25.7	37	28.0	32	31.4	26	25.0	24	23.8	64	29.6	18	19.8
마. 매우 잘한다	51	29.1	32	24.2	25	24.5	24	23.1	34	33.7	63	29.2	20	22.0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6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해 ‘전혀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응답한 학생이 없는데 반하여 남학생은 10%에 가까운 수치로 응답(남: 9.7%, 여: 0%)하고 있으며, ‘보통이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의 수치가 여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감상에 대해 더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감상의 인지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58.8%, 무: 41.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감상의 인지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2.0%, 무: 18.7%)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감상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감상에 대해 잘 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음악 분야에서라도 레슨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활동 영역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잘 한다고 응답했다.

3. 음악적 능력

1) 시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시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시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6	9.2	5	3.8	3	3.0	8	7.8	10	9.8	10	4.7	11	12.0
나. 약간 못한다	35	20.2	22	16.5	17	16.8	20	19.4	20	19.6	35	16.4	22	23.9
다. 보통이다	66	38.2	55	41.4	39	38.6	41	39.8	41	40.2	83	38.8	38	41.3
라. 약간 잘한다	40	23.1	36	27.1	34	33.7	21	20.4	21	20.6	64	29.9	12	13.0
마. 매우 잘한다	16	9.2	15	11.3	8	7.9	13	12.6	10	9.8	22	10.3	9	9.8
합계	173	100.0	133	100.0	101	100.0	103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시창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

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38.2%, 여: 41.4%)하고 있으며, ‘잘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시창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시창 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21.1%, 무: 35.9%)하고 있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시창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0.2%, 무: 22.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시창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시창 능력에 대해 보통보다 잘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음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청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청음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0	23.3	13	9.9	12	12.1	20	19.6	21	20.6	21	9.9	32	35.2
나. 약간 못한다	46	26.7	41	31.3	33	33.3	32	31.4	22	21.6	66	31.1	21	23.1
다. 보통이다	48	27.9	46	35.1	30	30.3	24	23.5	40	39.2	65	30.7	29	31.9
라. 약간 잘한다	23	13.4	21	16.0	16	16.2	19	18.6	9	8.8	38	17.9	6	6.6
마. 매우 잘한다	15	8.7	10	7.6	8	8.1	7	6.9	10	9.8	22	10.4	3	3.3
합계	172	100.0	131	100.0	99	100.0	102	100.0	102	100.0	212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청음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7.9%, 여: 35.1%)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0.0%, 여: 41.2%)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청음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청음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청음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3%, 무: 9.9%)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청음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1.0%, 무: 58.3%)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청음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청음 능력이 좀 낮은 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악 이론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음악 이론’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음악 이론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34	19.7	8	6.1	10	9.9	13	12.6	19	18.8	20	9.4	22	23.9
나. 약간 못한다	40	23.1	28	21.2	19	18.8	24	23.3	25	24.8	42	19.7	26	28.3
다. 보통이다	57	32.9	68	51.5	40	39.6	41	39.8	44	43.6	91	42.7	34	37.0
라. 약간 잘한다	27	15.6	19	14.4	21	20.8	17	16.5	8	7.9	42	19.7	4	4.3
마. 매우 잘한다	15	8.7	9	6.8	11	10.9	8	7.8	5	5.0	18	8.5	6	6.5
합계	173	100.0	132	100.0	101	100.0	103	100.0	101	100.0	213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2.9%, 여: 51.5%)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2.8%, 여: 27.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음악 이론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이론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2%, 무: 10.8%)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이론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9.1%, 무: 52.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이론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이론 능력을 '보통'의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민요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민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민요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1	23.8	15	11.3	17	16.8	19	18.3	20	20.0	28	13.1	28	30.8
나. 약간 못한다	54	31.4	47	35.3	33	32.7	43	41.3	25	25.0	75	35.0	26	28.6
다. 보통이다	63	36.6	60	45.1	40	39.6	34	32.7	49	49.0	90	42.1	33	36.3
라. 약간 잘한다	9	5.2	9	6.8	8	7.9	7	6.7	3	3.0	16	7.5	2	2.2
마. 매우 잘한다	5	2.9	2	1.5	3	3.0	1	1.0	3	3.0	5	2.3	2	2.2
합계	172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민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8.1%, 여: 8.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민요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민요 능력에 대해 ‘못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치로 응답(유: 48.1%, 무: 59.4%)하고 있다.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민요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2.1%, 무: 36.3%)해 결

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민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민요 능력에 대해 보통보다 못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휘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지휘'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지휘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74	42.3	19	14.3	32	31.4	35	33.7	26	25.5	48	22.2	45	48.9
나. 약간 못한다	42	24.0	36	27.1	22	21.6	29	27.9	27	26.5	54	25.0	24	26.1
다. 보통이다	44	25.1	57	42.9	35	34.3	28	26.9	38	37.3	82	38.0	19	20.7
라. 약간 잘한다	10	5.7	17	12.8	9	8.8	11	10.6	7	6.9	25	11.6	2	2.2
마. 매우 잘한다	5	2.9	4	3.0	4	3.9	1	1.0	4	3.9	7	3.2	2	2.2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지휘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

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5.1%, 여: 42.9%)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6.3%, 여: 41.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지휘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지휘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지휘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4.8%, 무: 4.4%)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지휘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47.2%, 무: 75.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휘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지휘 능력을 약간 못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합창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합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합창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32	18.4	7	5.3	14	13.7	14	13.6	11	10.8	18	8.4	21	22.8
나. 약간 못한다	44	25.3	14	10.5	19	18.6	18	17.5	21	20.6	35	16.3	23	25.0
다. 보통이다	61	35.1	67	50.4	44	43.1	40	38.8	44	43.1	98	45.6	30	32.6
라. 약간 잘한다	27	15.5	32	24.1	18	17.6	24	23.3	17	16.7	46	21.4	13	14.1
마. 매우 잘한다	10	5.7	13	9.8	7	6.9	7	6.8	9	8.8	18	8.4	5	5.4
합계	174	100.0	133	100.0	102	100.0	103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합창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5.1%, 여: 50.4%)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3.7%, 여: 15.8%)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합창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합창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합창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9.8%, 무: 19.5%)하

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합창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4.7%, 무: 47.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합창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합창 능력을 약간 잘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단소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단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단소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38	21.7	17	12.8	15	14.7	23	22.1	17	16.7	30	13.9	25	27.2
나. 약간 못한다	43	24.6	31	23.3	27	26.5	25	24.0	22	21.6	51	23.6	23	25.0
다. 보통이다	48	27.4	39	29.3	28	27.5	23	22.1	36	35.3	61	28.2	26	28.3
라. 약간 잘한다	29	16.6	35	26.3	25	24.5	22	21.2	17	16.7	55	25.5	9	9.8
마. 매우 잘한다	17	9.7	11	8.3	7	6.9	11	10.6	10	9.8	19	8.8	9	9.8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단소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7.4%, 여: 29.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단소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단소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4.3%, 무: 19.6%)하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단소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단소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단소 능력에 대해 보통인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장구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장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2>와 같다.

<표22> 장구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57	32.8	31	23.3	33	32.7	25	24.0	30	29.4	48	22.3	40	43.5
나. 약간 못한다	59	33.9	34	25.6	33	32.7	34	32.7	26	25.5	67	31.2	26	28.3
다. 보통이다	35	20.1	49	36.8	26	25.7	27	26.0	31	30.4	64	29.8	20	21.7
라. 약간 잘한다	16	9.2	13	9.8	7	6.9	13	12.5	9	8.8	26	12.1	3	3.3
마. 매우 잘한다	7	4.0	6	4.5	2	2.0	5	4.8	6	5.9	10	4.7	3	3.3
합계	174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장구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1%, 여: 36.8%)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6.7%, 여: 48.9%)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장구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장구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장구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6.8%, 무: 6.6%)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장구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53.5%, 무: 71.8%)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장구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장구 능력을 약간 못하는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리코더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리코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23> 리코더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6	9.2	3	2.3	4	4.0	8	7.8	7	7.0	4	1.9	15	16.5
나. 약간 못한다	35	20.2	8	6.1	16	15.8	15	14.6	12	12.0	24	11.3	19	20.9
다. 보통이다	65	37.6	48	36.6	36	35.6	35	34.0	42	42.0	76	35.7	37	40.7
라. 약간 잘한다	34	19.7	38	29.0	29	28.7	22	21.4	21	21.0	59	27.7	13	14.3
마. 매우 잘한다	23	13.3	34	26.0	16	15.8	23	22.3	18	18.0	50	23.5	7	7.7
합계	173	100.0	131	100.0	101	100.0	103	100.0	100	100.0	213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코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3.0%, 여: 55.0%)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29.4%, 여: 8.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리코더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리코더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리코더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51.2%, 무: 22.0%)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리코더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13.2%, 무: 37.4%)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리코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리코더 능력을 잘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바이올린’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바이올린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129	73.7	84	63.6	80	78.4	75	72.1	58	57.4	143	66.5	70	76.1
나. 약간 못한다	23	13.1	18	13.6	11	10.8	14	13.5	16	15.8	28	13.0	13	14.1
다. 보통이다	14	8.0	15	11.4	4	3.9	8	7.7	17	16.8	23	10.7	6	6.5
라. 약간 잘한다	6	3.4	10	7.6	5	4.9	4	3.8	7	6.9	14	6.5	2	2.2
마. 매우 잘한다	3	1.7	5	3.8	2	2.0	3	2.9	3	3.0	7	3.3	1	1.1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8.0%, 여: 11.4%)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바이올린 능력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9.8%, 무: 3.3%)하고 있다. 다른 의견으로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바이올린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

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바이올린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바이올린 능력에 대해 전혀 못하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피아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능력 중 '피아노'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피아노에 대한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못한다	47	26.9	13	9.8	18	17.6	22	21.2	20	19.6	12	5.6	48	52.2
나. 약간 못한다	37	21.1	28	21.1	23	22.5	25	24.0	17	16.7	42	19.4	23	25.0
다. 보통이다	55	31.4	34	25.6	28	27.5	28	26.9	33	32.4	75	34.7	14	15.2
라. 약간 잘한다	23	13.1	41	30.8	27	26.5	16	15.4	21	20.6	60	27.8	4	4.3
마. 매우 잘한다	13	7.4	17	12.8	6	5.9	13	12.5	11	10.8	27	12.5	3	3.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피아노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5%, 여: 43.6%)하고 있으며, ‘못한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8.0%, 여: 30.9%)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피아노 능력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피아노 능력은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피아노 능력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0.3%, 무: 7.6%)하고 있다. 대체로 ‘못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피아노 능력이 높은 쪽으로 응답(유: 25.0%, 무: 77.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아노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피아노 능력을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능력은 레슨을 받아본 학생들이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더 뛰어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4. 음악적 관심도

1)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교과’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6>과 같다.

<표26>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4	31.0	13	9.8	15	14.9	23	22.1	29	28.4	34	15.8	33	35.9
나. 약간 관심 없다	43	24.7	30	22.6	18	17.8	29	27.9	26	25.5	50	23.3	23	25.0
다. 보통이다	49	28.2	59	44.4	38	37.6	35	33.7	35	34.3	87	40.5	21	22.8
라. 약간 관심 있다	22	12.6	24	18.0	23	22.8	12	11.5	11	10.8	35	16.3	11	12.0
마. 매우 관심 있다	6	3.4	7	5.3	7	6.9	5	4.8	1	1.0	9	4.2	4	4.3
합계	174	100.0	133	100.0	101	100.0	104	100.0	102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6.0%, 여: 23.3%)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5.7%, 여: 32.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교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심 있다’고 응답(중1: 29.7%, 중2: 16.3%, 중3: 11.8%)한 경우 학년이 낮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순서로 나타났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0.5%, 무: 16.3%)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9.1%, 무: 60.9%)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교과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 동아리’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7>과 같다.

<표27>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3	42.0	24	18.0	26	25.5	41	39.4	30	29.7	51	23.7	46	50.0
나. 약간 관심 없다	45	25.9	35	26.3	30	29.4	25	24.0	25	24.8	67	31.2	13	14.1
다. 보통이다	32	18.4	42	31.6	19	18.6	23	22.1	32	31.7	52	24.2	22	23.9
라. 약간 관심 있다	19	10.9	22	16.5	20	19.6	11	10.6	10	9.9	32	14.9	9	9.8
마. 매우 관심 있다	5	2.9	10	7.5	7	6.9	4	3.8	4	4.0	13	6.0	2	2.2
합계	174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1	100.	215	100.	92	1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3.8%, 여: 24.0%)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7.9%, 여: 44.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동아리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0.9%, 무: 12.0%)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4.9%, 무: 64.1%)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연주회’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 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8>과 같다.

<표28>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1	40.6	14	10.8	31	30.4	28	27.2	26	26.0	41	19.2	44	48.4
나. 약간 관심 없다	27	15.4	37	28.5	24	23.5	18	17.5	22	22.0	48	22.4	16	17.6
다. 보통이다	51	29.1	41	31.5	23	22.5	31	30.1	38	38.0	74	34.6	18	19.8
라. 약간 관심 있다	18	10.3	26	20.0	13	12.7	20	19.4	11	11.0	34	15.9	10	11.0
마. 매우 관심 있다	8	4.6	12	9.2	11	10.8	6	5.8	3	3.0	17	7.9	3	3.3
합계	175	100.0	130	100.0	102	100.0	103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4.9%, 여: 29.2%)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6.0%, 여: 39.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연주회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3.8%, 무: 14.3%)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41.6%, 무: 66.0%)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연주회에 대한 관심도를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대중가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29>와 같다.

<표29> 대중 가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37	21.1	5	3.8	14	13.7	13	12.5	15	14.7	17	7.9	25	27.2
나. 약간 관심 없다	20	11.4	10	7.5	6	5.9	12	11.5	12	11.8	19	8.8	11	12.0
다. 보통이다	35	20.0	19	14.3	17	16.7	15	14.4	22	21.6	39	18.1	15	16.3
라. 약간 관심 있다	31	17.7	28	21.1	20	19.6	20	19.2	19	18.6	42	19.4	17	18.5
마. 매우 관심 있다	52	29.7	71	53.4	45	44.1	44	42.3	34	33.3	99	45.8	24	26.1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47.4%, 여: 74.5%)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32.5%, 여: 11.3%)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대중가요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65.2%, 무: 44.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16.7%, 무: 39.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0>과 같다.

<표30>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3	30.8	12	9.1	22	22.0	23	22.1	20	20.0	35	16.4	30	33.0
나. 약간 관심 없다	24	14.0	25	18.9	17	17.0	9	8.7	23	23.0	33	15.5	16	17.6
다. 보통이다	40	23.3	40	30.3	23	23.0	29	27.9	28	28.0	60	28.2	20	22.0
라. 약간 관심 있다	34	19.8	43	32.6	24	24.0	33	31.7	20	20.0	59	27.7	18	19.8
마. 매우 관심 있다	21	12.2	12	9.1	14	14.0	10	9.6	9	9.0	26	12.2	7	7.7
합계	172	100.0	132	100.0	100	100.0	104	100.0	100	100.0	213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2.0%, 여: 41.7%)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4.8%, 여: 28.0%)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39.9%, 무: 27.5%)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1.9%, 무: 50.6%)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판소리, 민요’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8	44.6	44	33.3	37	36.3	49	47.1	36	35.6	75	34.9	47	51.1
나. 약간 관심 없다	44	25.1	46	34.8	34	33.3	24	23.1	32	31.7	69	32.1	21	22.8
다. 보통이다	42	24.0	32	24.2	26	25.5	21	20.2	27	26.7	55	25.6	19	20.7
라. 약간 관심 있다	10	5.7	8	6.1	5	4.9	9	8.7	4	4.0	14	6.5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1	.6	2	1.5			1	1.0	2	2.0	2	.9	1	1.1
합계	175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1	100.0	215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4.0%, 여: 24.2%)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7.4%, 무: 5.4%)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판소리, 민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약간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국악 기악곡’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86	49.4	47	35.6	41	40.2	54	51.9	38	38.0	85	39.7	48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41	23.6	50	37.9	36	35.3	22	21.2	33	33.0	68	31.8	23	25.0
다. 보통이다	35	20.1	26	19.7	18	17.6	21	20.2	22	22.0	46	21.5	15	16.3
라. 약간 관심 있다	9	5.2	7	5.3	6	5.9	5	4.8	5	5.0	12	5.6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3	1.7	2	1.5	1	1.0	2	1.9	2	2.0	3	1.4	2	2.2
합계	174	100.0	132	100.0	102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

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0.1%, 여: 19.7%)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7.0%, 무: 6.5%)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국악 기악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팝송’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3>과 같다.

<표33> 팝송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51	29.1	25	18.8	23	22.5	31	29.8	22	21.6	47	21.8	29	31.5
나. 약간 관심 없다	28	16.0	29	21.8	15	14.7	20	19.2	22	21.6	40	18.5	17	18.5
다. 보통이다	41	23.4	35	26.3	27	26.5	21	20.2	28	27.5	52	24.1	24	26.1
라. 약간 관심 있다	34	19.4	28	21.1	29	28.4	16	15.4	17	16.7	49	22.7	13	14.1
마. 매우 관심 있다	21	12.0	16	12.0	8	7.8	16	15.4	13	12.7	28	13.0	9	9.8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23.4%, 여: 26.3%)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팝송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24.1%, 무: 26.1%)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의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팝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 정도의 관심을 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종교 음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 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87	50.6	54	41.2	41	40.6	55	52.9	45	45.9	94	44.1	47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27	15.7	29	22.1	21	20.8	18	17.3	17	17.3	43	20.2	13	14.4
다. 보통이다	31	18.0	26	19.8	24	23.8	13	12.5	20	20.4	42	19.7	15	16.7
라. 약간 관심 있다	21	12.2	10	7.6	11	10.9	9	8.7	11	11.2	22	10.3	9	10.0
마. 매우 관심 있다	6	3.5	12	9.2	4	4.0	9	8.7	5	5.1	12	5.6	6	6.7
합계	172	100.0	131	100.0	101	100.0	104	100.0	98	100.0	213	100.0	90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8.0%, 여: 19.8%)하고 있으며, ‘관심 있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수치가 비슷하게 응답(남: 15.7%, 여: 16.8%)한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년에 따른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도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유: 15.9%, 무: 16.7%)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종교 음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약간 관심 없다는 쪽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가창’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5>와 같다.

앞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영역에서는 가창을 잘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물었고 여기서부터는 가창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표35> 가창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62	35.6	19	14.5	26	25.7	29	27.9	26	26.0	43	20.1	38	41.8
나. 약간 관심 없다	32	18.4	21	16.0	20	19.8	13	12.5	20	20.0	39	18.2	14	15.4
다. 보통이다	43	24.7	48	36.6	27	26.7	34	32.7	30	30.0	68	31.8	23	25.3
라. 약간 관심 있다	22	12.6	27	20.6	17	16.8	14	13.5	18	18.0	37	17.3	12	13.2
마. 매우 관심 있다	15	8.6	16	12.2	11	10.9	14	13.5	6	6.0	27	12.6	4	4.4
합계	174	100.0	131	100.0	101	100.0	104	100.0	100	100.0	214	100.0	91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20.2%, 여: 32.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54.0%, 여: 30.5%)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가창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창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가창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9.9%, 무: 17.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가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38.3%, 무: 57.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가창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관심 있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기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기악’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6>과 같다.

<표36> 기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6	43.7	30	22.6	37	36.3	39	37.5	30	29.7	62	28.7	44	48.4
나. 약간 관심 없다	29	16.7	41	30.8	23	22.5	23	22.1	24	23.8	51	23.6	19	20.9
다. 보통이다	45	25.9	37	27.8	27	26.5	30	28.8	25	24.8	61	28.2	21	23.1
라. 약간 관심 있다	18	10.3	18	13.5	9	8.8	10	9.6	17	16.8	30	13.9	6	6.6
마. 매우 관심 있다	6	3.4	7	5.3	6	5.9	2	1.9	5	5.0	12	5.6	1	1.1
합계	174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1	100.	216	100.	91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3.7%, 여: 18.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0.4%, 여: 53.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기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기악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기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9.5%, 무: 7.7%)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2.3%, 무: 69.3%)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기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기악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창작’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

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7>과 같다.

<표37> 창작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6	43.7	38	28.8	37	37.0	47	45.2	30	29.4	66	30.8	48	52.2
나. 약간 관심 없다	42	24.1	38	28.8	27	27.0	27	26.0	26	25.5	61	28.5	19	20.7
다. 보통이다	37	21.3	42	31.8	21	21.0	23	22.1	35	34.3	61	28.5	18	19.6
라. 약간 관심 있다	11	6.3	8	6.1	8	8.0	3	2.9	8	7.8	15	7.0	4	4.3
마. 매우 관심 있다	8	4.6	6	4.5	7	7.0	4	3.8	3	2.9	11	5.1	3	3.3
합계	174	100.0	132	100.0	100	100.0	104	100.0	102	100.0	214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로 응답(남: 10.9%, 여: 10.6%)하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비슷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창작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창작에 대한 관심도

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28.5%, 무: 19.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9.3%, 무: 72.9%)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창작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감상’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8>과 같다.

<표38> 감상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46	26.3	11	8.3	19	18.6	21	20.2	17	16.7	29	13.4	28	30.4
나. 약간 관심 없다	25	14.3	21	15.8	9	8.8	17	16.3	20	19.6	33	15.3	13	14.1
다. 보통이다	40	22.9	44	33.1	30	29.4	27	26.0	27	26.5	61	28.2	23	25.0
라. 약간 관심 있다	31	17.7	36	27.1	24	23.5	23	22.1	20	19.6	54	25.0	13	14.1
마. 매우 관심 있다	33	18.9	21	15.8	20	19.6	16	15.4	18	17.6	39	18.1	15	16.3
합계	175	100.	133	100.	102	100.	104	100.	102	100.	216	100.	92	100.
		0		0		0		0		0		0		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36.6%, 여: 42.9%)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40.6%, 여: 24.1%)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감상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감상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감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43.1%,

무: 30.4%)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감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28.7%, 무: 44.5%)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감상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감상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결과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중 ‘음악 이론’에 대한 성별·학년별·레슨경험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39>와 같다.

<표39>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 분석

구분	성별				학년						레슨 경험			
	남		여		중1		중2		중3		유		무	
정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N	%	N	%	N	%	N	%	N	%	N	%	N	%
가. 전혀 관심 없다	79	45.1	31	23.3	30	29.4	42	40.4	38	37.3	60	27.8	50	54.3
나. 약간 관심 없다	39	22.3	40	30.1	27	26.5	26	25.0	26	25.5	57	26.4	22	23.9
다. 보통이다	34	19.4	45	33.8	28	27.5	25	24.0	26	25.5	66	30.6	13	14.1
라. 약간 관심 있다	13	7.4	12	9.0	10	9.8	7	6.7	8	7.8	22	10.2	3	3.3
마. 매우 관심 있다	10	5.7	5	3.8	7	6.9	4	3.8	4	3.9	11	5.1	4	4.3
합계	175	100.0	133	100.0	102	100.0	104	100.0	102	100.0	216	100.0	92	100.0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수치로 응답(남: 19.4%, 여: 33.8%)하고 있으며, ‘관심 없다’의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응답(남: 67.4%, 여: 53.4%)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음악 이론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는 각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슨 경험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을 한 학생의 경우 레슨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유:

15.3%, 무: 7.6%)하고 있다. 대체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응답(유: 54.2%, 무: 78.2%)해 결과적으로 레슨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레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은 자신의 음악 이론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는 생각보다 적었다. 특히 국악이나 팝송, 종교 음악 등에는 더욱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가요에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음악수업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분야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겠다.

5. 음악적 자아 인식 분석

아래의 <표40>은 학생들이 음악적 자아 인식에 응답한 문항에 관한 점수이다. 여기서부터는 이 표를 토대로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였다.

<표40> 음악적 자아인식 문항별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5점

가)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41> 음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

		N	M	t
성별	남	175	2.82(±1.31)	-2.89**
	여	132	3.23(±1.08)	
레슨경험	유	215	3.11(±1.20)	2.42*
	무	92	2.74(±1.26)	

***p<.05 **p<.01 *p<.001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82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23점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11점인데 반하여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은 2.74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보통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으며,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2>와 같다.

<표4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3	3.47(±1.31)	-2.32*
	여	133	3.78(±.97)	
레슨경험	유	214	3.74(±1.09)	3.17**
	무	92	3.28(±1.31)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47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78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74점인데 반하여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의 평균은

3.28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 관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3>과 같다.

<표4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5	2.89(±1.30)	-4.21***
	여	133	3.47(±1.09)	
레슨경험	유	216	3.28(±1.22)	3.12**
	무	92	2.80(±1.25)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89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47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8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8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

부성과의 관련성에는 특히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에게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라)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4>와 같다.

<표4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N	M	t
성별	남	175	3.15(±1.28)	-3.42**
	여	132	3.63(±1.13)	
레슨경험	유	216	3.56(±1.14)	4.61***
	무	91	2.87(±1.33)	

***p<.05 **p<.01 *p<.001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15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63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56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8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에는 여학생과 레슨 경험자들에게서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5>와 같다.

<표45>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

		N	M	t
성별	남	173	2.91(±1.22)	-1.90
	여	131	3.17(±1.14)	
레슨경험	유	212	3.20(±1.15)	4.12***
	무	92	2.60(±1.19)	

***p<.05 **p<.01 *p<.001

능숙하게 될 때까지 음악 연습의 노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91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17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0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6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숙하게 될 때까지의 음악 연습의 노력성에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레슨 경험자들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6>과 같다.

<표46>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N	M	t
성별	남	175	2.60±1.29	-1.50
	여	132	2.81±1.11	
레슨경험	유	215	2.79±1.22	2.11*
	무	92	2.47±1.20	

***p<.05 **p<.01 *p<.001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60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81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79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4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성적과 관련지어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레슨 경험자들이 더 그러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7>과 같다.

<표4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N	M	t
성별	남	173	2.51(±1.24)	-.70
	여	131	2.60(±1.04)	
레슨경험	유	216	2.66(±1.13)	2.69**
	무	88	2.27(±1.19)	

***p<.05 **p<.01 *p<.001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51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60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66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2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음악 성적에 있어서 자기 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 경험자들이 더 자기 평가를 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8>과

같다.

<표48>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N	M	t
성별	남	174	2.69(±1.32)	-2.60*
	여	132	3.05(±.99)	
레슨경험	유	214	3.05(±1.12)	4.69***
	무	92	2.37(±1.24)	

***p<.05 **p<.01 *p<.001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69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05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05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37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평가보다 오히려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는 받아 본 학생이 타인 평가를 더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9>와 같다.

<표49>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4	2.52(±1.24)	-1.11
	여	133	2.68(±1.15)	
레슨경험	유	215	2.70(±1.18)	2.43*
	무	92	2.34(±1.21)	

***p<.05 **p<.01 *p<.001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52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2.68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2.70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34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음악 수업과 실생활과는 관련성을 적게 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응답했다.

차)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0>과 같다.

<표5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5	1.78(±1.16)	-1.14
	여	131	1.80(±1.09)	
레슨경험	유	214	1.87(±1.18)	1.86
	무	92	1.61(±1.01)	

***p<.05 **p<.01 *p<.001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1.78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1.80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1.87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1.61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는 집에서 거의 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1>과 같다.

<표5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N	M	t
성별	남	174	3.86(±1.36)	-3.16**
	여	132	4.30(±1.02)	
레슨경험	유	215	4.24(±1.08)	4.18***
	무	91	3.60(±1.47)	

***p<.05 **p<.01 *p<.001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3.86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4.30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4.24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3.60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음악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음악을 더 자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음악 레슨의 필요성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52>와 같다.

<표52> 음악 레슨의 필요성

		N	M	t
성별	남	174	2.98(±1.42)	-2.86**
	여	131	3.40(±1.11)	
레슨경험	유	215	3.24(±1.23)	1.68
	무	90	2.97(±1.48)	

***p<.05 **p<.01 *p<.001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평균이 2.98점인데 반하여 여학생은 3.40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레슨 경험 학생의 평균이 3.24점인데 반하여 받지 않은 학생이 2.97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레슨의 필요성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 <표53>은 학년별 음악적 자아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이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레슨의 필요성에서만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학년별 음악적 자아인식

학년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	집단간	1.66	2	.83	.55	.58
	집단내	461.34	304	1.52		
	합	463.00	306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의 관련성	집단간	6.32	2	3.16	2.28	.10
	집단내	418.84	303	1.38		
	합	425.15	305			
음악 교육과 상상력의 풍부성과의 관련성	집단간	9.71	2	4.85	.031	.97
	집단내	476.90	305	1.56		
	합	477.00	307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력의 관련성	집단간	1.25	2	.62	.40	.67
	집단내	469.05	304	1.54		
	합	470.30	306			
능숙하게 될 때까지의 음악 연습의 노력성	집단간	4.44	2	2.22	1.57	.21
	집단내	425.44	301	1.41		
	합	429.89	303			
성적과 관련 없다고 해도 음악교육의 중요성	집단간	2.90	2	1.45	.98	.38
	집단내	450.71	304	1.49		
	합	453.60	306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 가능성	집단간	3.19	2	1.60	1.19	.31
	집단내	404.07	301	1.34		
	합	407.26	303			
음악 실기의 타인 평가 가능성	집단간	2.75	2	1.37	.96	.39
	집단내	435.72	303	1.45		
	합	438.47	305			
음악 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	집단간	5.98	2	2.99	2.09	.13
	집단내	434.31	304	1.43		
	합	440.29	306			

학년별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하는 정도	집단간	.77	2	.38	.30	.74
	집단내	389.85	303	1.29		
	합	390.61	305			
음악을 자주 듣는 정도	집단간	.26	2	.132	.085	.92
	집단내	470.00	303	1.55		
	합	470.27	305			
음악 레슨의 필요성	집단간	17.94	2	8.97	5.36	.01
	집단내	505.19	302	1.67		
	합	523.13	304			

음악적 자아 인식에서는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음악 레슨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가족과의 연주라든지 음악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과반수가 넘었다. 학생들이 음악을 더 가까이 느끼도록 그들의 자아 인식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6. 요약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음악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학생들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의 인지도는 아래와 같다. 이해 영역의 7가지 즉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중에 빠르기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리듬과 가락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셈여림과 형식, 화성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들의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의 인지도는 아래와 같다. 활동 영역의 4가지 즉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중에 감상 영역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창과 기악, 창작 순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은 아래와 같다. 합창과 리코더, 시창에 대한 능력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음악이론과 단소, 피아노 능력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밖에 청음과 지휘 능력, 민요와 장구 능력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소수의 학생들만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중학생들의 음악적 관심도는 아래와 같다. 먼저 대중가요에 대해서 학생들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클래식 음악과 감상, 가창 등의 순으로 관심이 나타났다. 팝송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관심을 보였고 음악교과나 동아리, 연주회, 종교음악과 기악, 창작, 이론 부분에선 약간 낮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국악에 대해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여서 판소리, 민요, 국악 기악곡 등의 관심도를 묻는 부분에선 대다수의 학생들이 ‘관심 없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자아 인식은 아래와 같다. 중학생들은 음악교육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안정감과 상상력의 풍부해짐 그리고 감정 표현력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레슨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슨은 필요하고 능숙해질 때까지 끝까지 연습하며 음악을 자주 듣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성적과 관련 없이도 자발적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적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고 음악 실기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는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보다는 타인평가를 더 잘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음악 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 되는 정도는 적으며 학생들은 집에서 가족과 연주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사춘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중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중학생들의 성격과 태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음악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음악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악과 그 공통점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음악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하여 우선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았고 더불어 그들의 음악적 능력과 관심도, 자아 인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서울에 있는 남녀공학 s 중학교 1, 2, 3학년(각 102명, 104명,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이 연구에 나타난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내용에 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섹시함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고 있었고 화성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감상 영역에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 창작 영역에는 자신 없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능력에 대해서는 합창과 리코더, 감상 능력에는 강한테 비해 민요나 장구 같은 국악 능력은 낮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시창이나 단소, 음악 이론, 피아노 같은 것에는 보통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관심도에 대해서는 대중가요에는 높은 관심을 보인데 반하여 국악 기악곡이나 판소리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과나 연주회, 동아리 등에는 보통의 관심을 보였다.

음악적 자아 인식에서는 음악교육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의 표현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음악 레슨은 필요하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한 반면 음악수업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연주한다는 학생들의 응답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레슨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없는 학생의 관심이 저조했다. 그리고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중시하여 음악 교과를 소홀히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학교 음악 수업에 중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수업 기술을 도입한다면 수업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저조한 국악 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국악 교육을 음악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국악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과 대중 가요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하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의 내용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 교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수업을 할 때 비로소 중학생들은 자발

적이고 창의적인 음악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음악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 인적 자원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서우석. 『서우석 음악 논집 물결 높던 날들의 연가』, 나남,
1986.

석문주.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풍남,
1996.

이성삼. 『음악 교수법』, 세광 음악 출판사, 1982.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 음악 출판사, 1990.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 음악 출판사, 1993.

장 피아제. 『교육론』, 동문선.

<논문>

강은경. “청소년의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2003.

고현. “청소년들의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선혜. “현장 음악교육의 문제점”, 「음악과 민족」, 제20호, 민족 음악학회, 2000.

김혜경. “TV방송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 19호, 민족 음악 학회, 2000.

백연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음악선호도 조사 비교 연구” 영남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정연, 이윤경.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하여”, 「민족음악」, 제1
집, 민족음악연구회, 1990.

주수정.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music contents and preference of middle school in music education.

Ji hyun kim

The Music curriculum is remained worthless education that student studying important of an entrance exam, but musical influence is proved by many researcher. Musics have to go together man's all life regardless age furthermore adolescence, making rational decision hard, have to be given opportunity to learn instructive music in other to take care of their mind and music teachers guide juvenile know right recognition and enjoying music during school hours.

It's very useful for music teacher to know what students prefer for music or what they appreciate one. It should be very helpful when students know how much talents they got and what kind of music they like and what they think about the music educations.

In this paper, musical preference investig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 through their conscious of music in mind and in common can help to find valuable musical education.

부록(설문지)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 조사 연구

남() 여() 학년()

레슨 경험 : 유() 무()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음악적 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로 학위 논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4월

※ 다음 문항을 보고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이해 영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모른다	약간 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안다	매우 잘 안다
1	리듬					
2	가락					
3	화성					
4	형식					
5	셈여림					
6	빠르기					
7	음색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활동 영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못한다	약간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가창(노래 부르기)					
2	기악(악기 연주)					
3	창작(짧은곡 만들기)					
4	감상(음악 듣기)					

3. 음악적 능력

번호	질문 내용	전혀 못한다	약간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시창 (보고 부르기)					
2	청음(듣고 적기)					
3	음악이론(필기 내용)					
4	민요					
5	지휘					
6	합창					
7	단소					
8	장구					
9	리코더					
10	바이올린					
11	피아노					

4.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도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관심 없다	약간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음악 교과					
2	음악 동아리					
3	연주회					
4	대중가요					
5	클래식 음악					
6	판소리, 민요					
7	국악 기악곡					
8	팝송					
9	종교 음악					
10	가창					
11	기악					
12	창작					
13	감상					
14	이론					

5. 음악적 자아 인식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이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2	음악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과는 관련이 있다.					
3	음악 교육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은 관련이 있다.					
4	음악 교육과 감정 표현은 관련이 있다.					
5	능숙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한다.					
6	음악교육은 성적과 관련 없이 중요하다.					
7	음악 성적의 자기 평가가 가능하다.					
8	다른 사람의 연주나 노래의 평가가 가능하다.					
9	수업시간의 배움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10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한다.					
11	음악을 자주 듣는다.					
12	음악 레슨은 필요하다.					